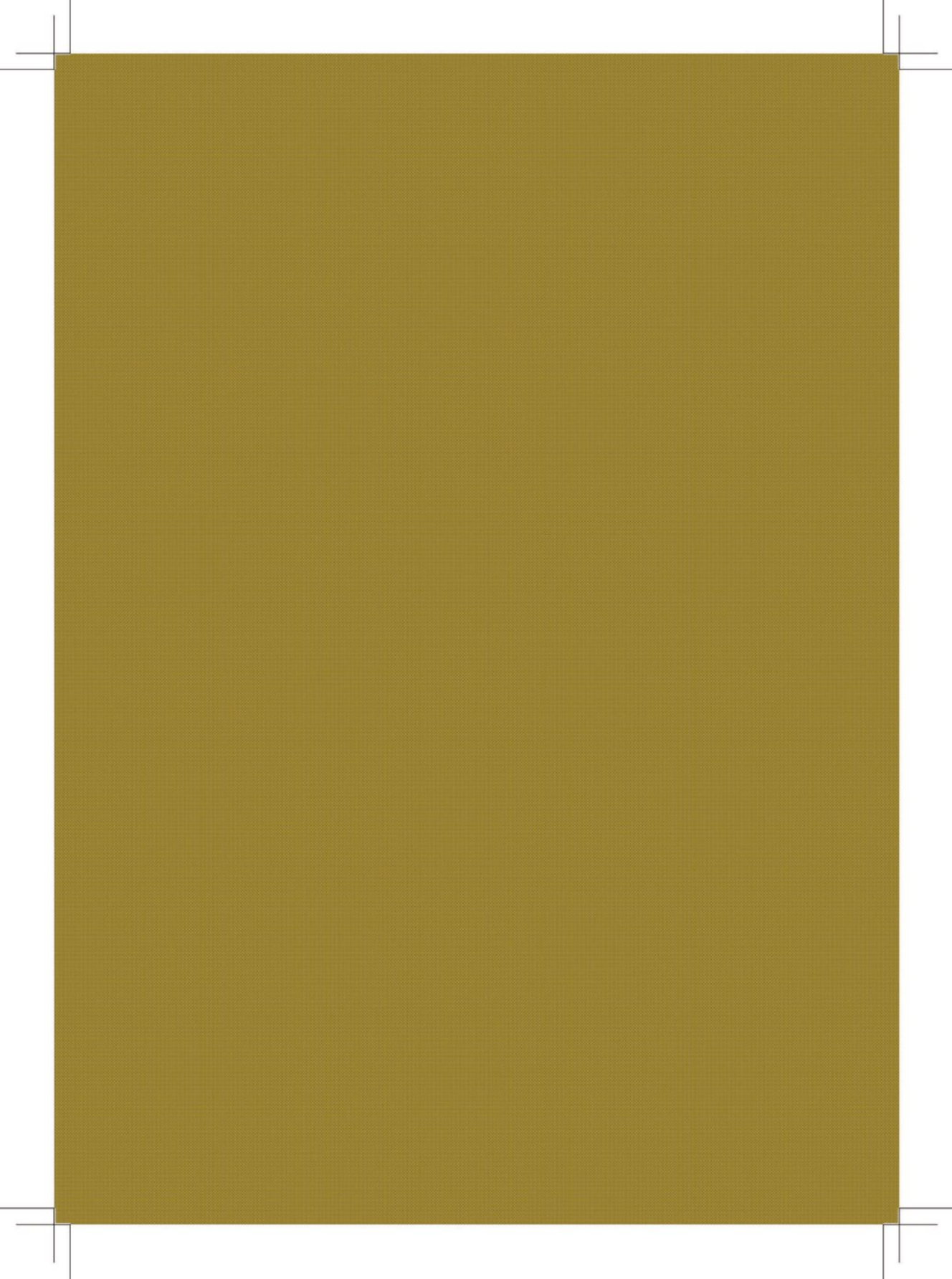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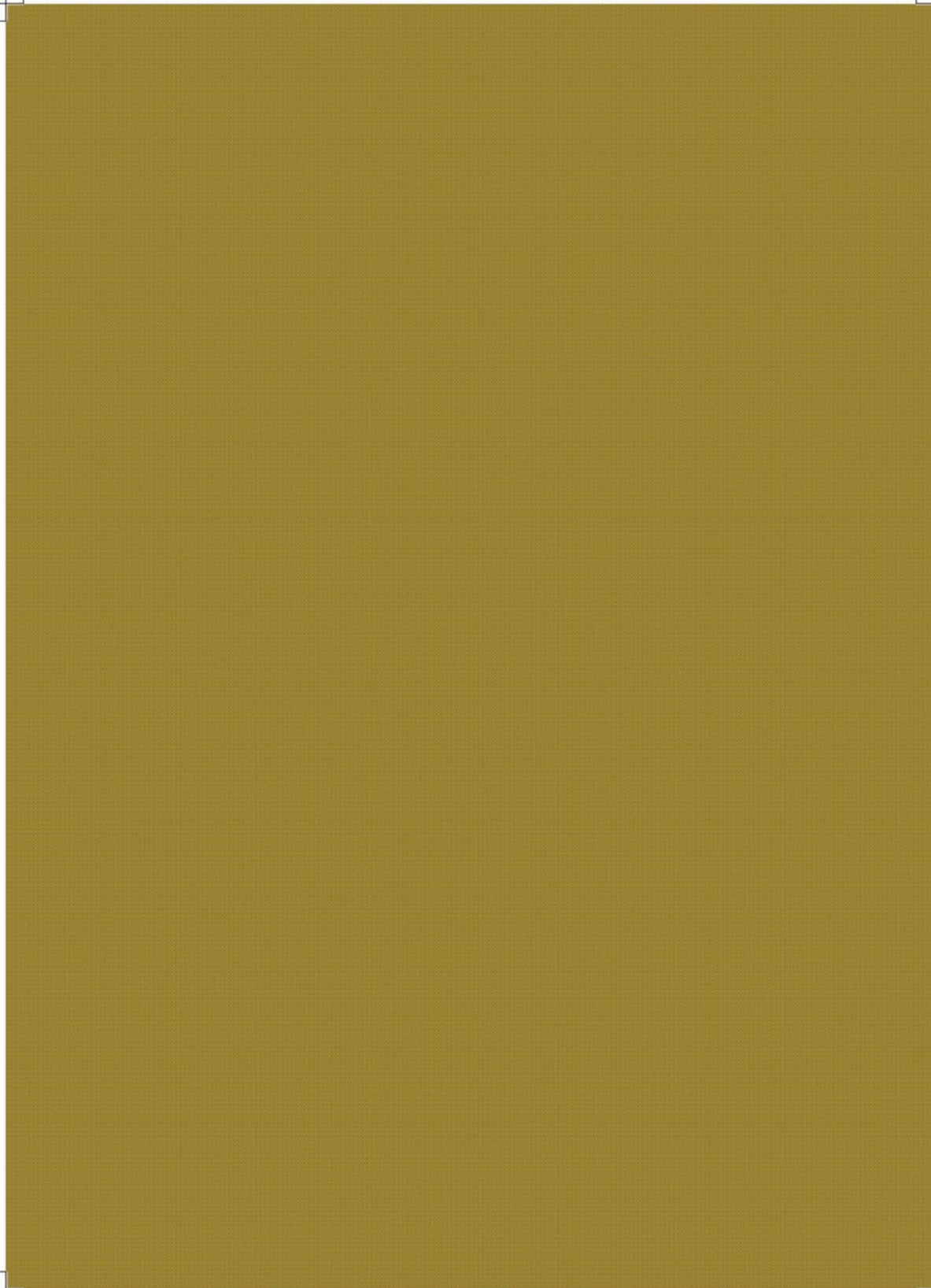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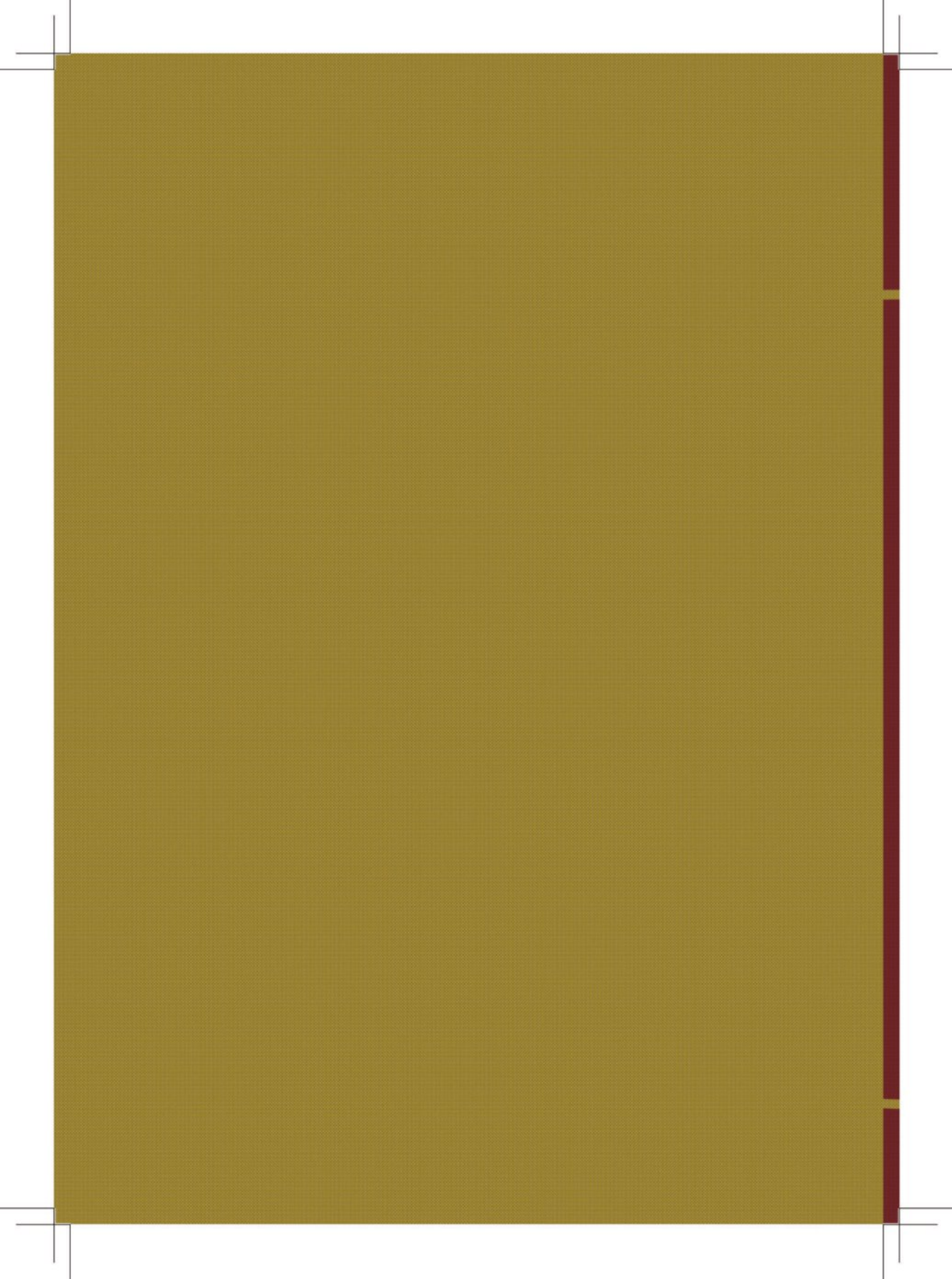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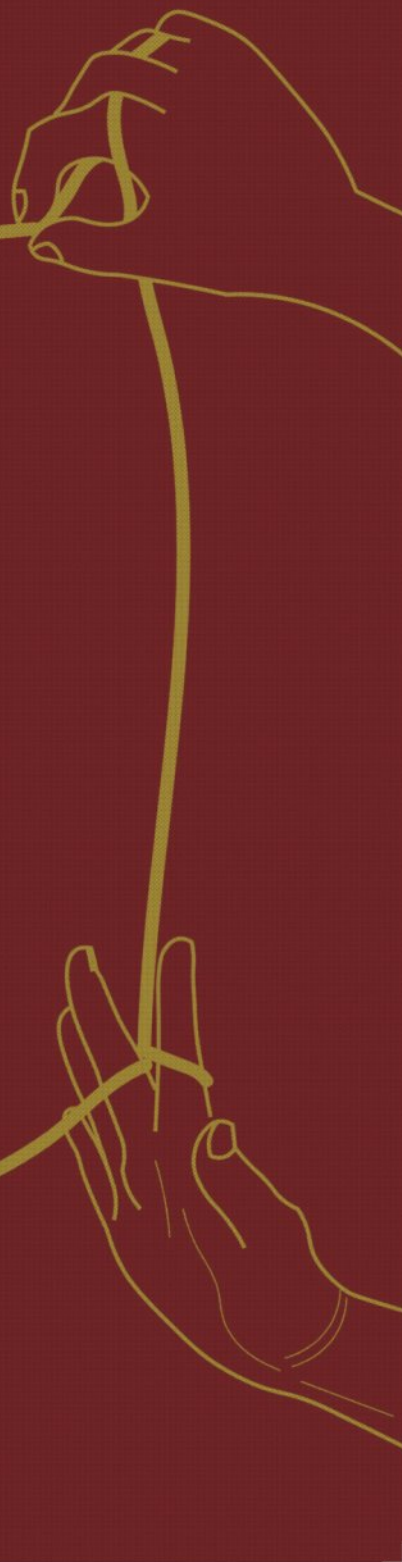




다사리 : 다 말하게 하여, 잘 살게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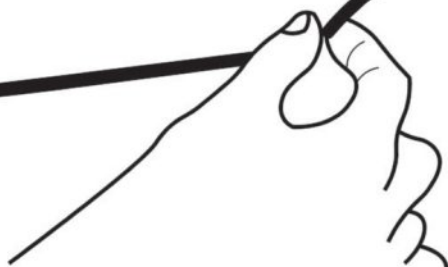
2018
다사리문화기획학교





강은정
김가영
마태광
박윤정
방민아
송아영
양현아
우선식
유진
이가은
이근준
이연우
이지선
이현수
임나경
조정현
조혜란
지행숙
차해란
최서아
한혜성
홍준형

2018
다사리문화기획학교



다사리문화기획학교 2014-2018

기 간 | 2018년 5월 - 2018년 12월

장 소 |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 다사리문화기획학교 여러 곳의 현장

멘 토 | 김월식, 강정석, 이채관, 임재춘, 주성진

총 괄 | 서정문(경기문화재단 본부장), 황순주(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기 획 | 김월식

답 당 | 우상화

편 집 | 마태광, 이현수, 최서아

표지 디자인 | 마태광

디자인 및 일러스트 | 김새봄

도 움 | 김지연, 안경화

발행인 |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 2018년 12월 15일

© 2018 경기문화재단

본 책은 다사리문화기획학교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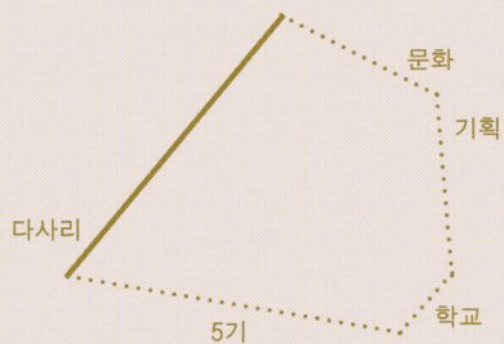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말하게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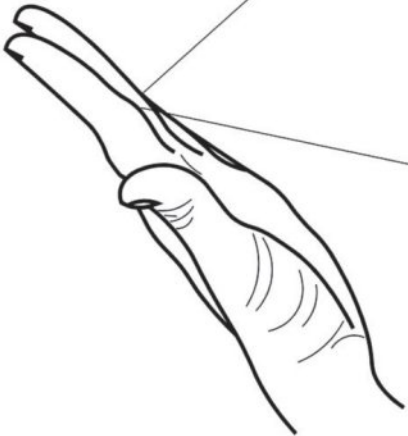
모두 다 살리어

다 사 리



함께하는 삶의 가치, 다사리 정신과 철학

김종길 | 前 다사리문화학교 마당샘



다사리 : 다 말하게 하여, 다 잘살게 하여

다사리문화학교는 '다사리'라는 말의 뜻과 철학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21세기 새로운 문화예술기획을 위한 다사리 정신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저는 정윤재 선생께서 갈무리하신 『다사리 공동체를 향하여-민세 안재홍 평전』(2002)을 보게 되었어요. 스물 셋의 나이에 독립혁명단체 동계사에 가입하고(1913), 스물아홉에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비밀조직에 가담한 뒤(1919), 신간회 활동을 하며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자 열린 민족주의자셨던 민세 안재홍(民世 安在鴻, 1891~1965) 선생을 아예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그 책의 내용이 그분의 정신을 확연히 드러내더군요.

저는 그분의 사상에 매혹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사리’는 제가 궁구했던 여러 삶의 의문들을 풀어주는 좋은 열쇳말이었어요. 선생께서는 “‘다사리’는 우주의 엄정한 질서와 운행법칙을 모델로 하는 인간사회의 정치이념이자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의 정치적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사리’는 ‘모두 다 말(쏟)하게 하여’나 ‘다 사리 운다’와 같은 우리말을 뿌리로 두는 데요, 이 말의 의미는 ‘진백’(盡白)과 ‘진생’(盡生)과 통하는 것이에요.

진백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뜻하고, 진생은 공동체 모두를 골고루 잘살게 해주는 사회복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유주와 평등주의의 이념인 거예요. 정윤재 선생은 『다사리 공동체를 향하여-민세 안재홍 평전』(한울, 210쪽, 2002)에서 “‘다사리’는 ‘다 사리어’(다 말하게 하여)와 ‘다 살리어’(다 잘살게 하여)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면서 ‘다 사리어’는 모두 정치에 참여케 하는 정치방식으로 ‘진백(盡白)’의 가치이고, ‘다 살리어’는 복지를 증진시켜 모두 살리는 정치목표로서 ‘진생(盡生)’의 가치라고 분석했지요.

정윤재 선생은 ‘민세 안재홍 평전’을 내고 10년이 지나서 「민세 안재홍의 다사리이념 분석」(『동양정치사상사 제11권 제2호』, 2012.9)이라는 논문 하나를 발표해요. ‘다사리’를 사상의 개념으로 온전히 바로 세우려는 작업이었어요. 선생이 정리한 다사리 이념의 세 가지 고갱이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다사리 이념은 '나'의 자유론에서 출발하면서도 '나라'와 '누리'와 상통하는 사상적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과 국가 그리고 세계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지구화시대에 합당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다사리 이념은 진백을 정치적 절차상의 핵심가치로 삼는 한편, 진생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에 따른 정치 리더십만 적절하게 발휘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실천적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

셋째,

이렇게 하여 다사리 이념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이 극복되어 건강한 다사리공동체 형성에 성공한다면, 이는 장차 민족통일의 미래를 가꾸어 가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을 감화(感化)시키고 통합(統合)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하나둘셋넷다섯 : 철학의 뿌리를 찾아서

다사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철학은 '만민공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삶'의 가치를 이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현실이 우리가 만들어 갈 이상향 아닐까요?

민세 선생은 지천명의 나이 스이 되자 조선상고사 집필에 들어가요. 또한 선들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아홉 번째 옥고를 치루기도 하고요. 선생은 자신의 사상을 깊고 넓게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 역사와 우리말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상은 결코 외국사상의 모방이 아닌 “고대 이래의 조국고유의 민족주의 · 국민주의 · 민주주의의 제이념과 꼭 합치되고, 다만 그것을 현대적 의의에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의 구체적인 증거로 일즉다(一卽多) · 대즉일(大卽一) · 개즉전(個卽全)의 회통철학(會通哲學)과 화백(和白) · 홍익인간 · 재세이화(在世理化) · 접화군생(接化群生) · 대동(大同) 등과 같은 우리의 오래된 만민공생(萬民共生)의 개념을 보여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선생은 이런 만민공생의 개념이 하나(一:한울) · 둘(二:땅) · 셋(三:씨) · 넷(四:나 · 나라) · 다섯(五:다사리) · 여섯(六:연속) · 일곱(七:성취) · 여덟(八:열고닫음) · 아홉(九:아우름 · 회통) · 열(十:개전) · 백(百:온통) · 천(千:참) · 만(萬:조화) · 억(億:선)과 같은 우리 숫자 말에 나타나 있다고 풀이하기도 했어요. 일이삼사오가 아니라 하나둘셋넷다섯이 품고 있는 유불선의 철학이 보이나요? 단재 신채호 선생으로부터 비롯된 우리말의 말뿌리 철학이 선생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민세 선생은 “전 민족이 초계급적으로 굴욕과 착취의 대상이 됐고, 이제 전 민족이 초계급적으로 해방됐으니 초계급적인 통합민족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선생은 그 엄혹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아홉 번이나 옥고를 치를 정도로 정신이 곤팠어요. 그런 선생의 비타협적인 저항 정신은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선생의 아호 ‘민세(民世)’는 ‘민족’과 ‘세계’에서 한 자씩 따서 만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이념은 “민족으로 세계에, 세계로 민족에, 교호(交互)되고 조합(調合)되는 민족적 국제주의-국제적 민족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민세 선생의 다사리 공동체와 사상사적 맥락에서 21세기 새로운 문화기획의 철학을 엿보았어요.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다사리문화학교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서 손색이 없었던 것이죠.

공공하는 문화, 공공하는 학교

자, 그렇다면 다사리문화학교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현실이 이상향이 될 수 있나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한 번 더 새겨야 할 공공성에 대해 알아보죠.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는 말 아세요? 사사로운 감정을 없애고 공공의 목적을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죠. 같은 말로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있어요. 공공은 사사로운 것에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언 듯 우리는 이 말이 애국이나 충정을 뜻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공공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하지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말은 다소 충격적인 뜻으로 읽힐 수 있어요.

사사로운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나의 ‘나들’로서 ‘우리’의 일입니다. 봉공(奉公)이라는 공공은 국가나 정부를 뜻하지요. 이를 풀어 말하면 국가나 정부의 공익이 나의 이익에 앞서 있다는 뜻이 되지요. 멸사봉공과 선공후사의 정신은 그러므로 자칫 전체주의나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문제가 다를 수 있겠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일을 수행해야 하지요.

멸사봉공을 멸공봉사로 바꿔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멸공봉사는

민주주의에 합당한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공공을 없애고 오직 사사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니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자주 이 둘을 혼동하거나 부정하며, 잊고 삽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활사개공(活私開公)해야 해요. 활사는 나를 크게 살리는 것이에요. 이때 나는 너의 나이고 나의 너여서, 우리 모두를 말해요. 서로주체의 서로 삶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공을 활짝 열어야 하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요. 이를 행복공창(幸福公創)이라고 하고요.

‘공공하다’의 뜻은 공공행복의 세계를 공동(共働:人+動)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위한 지적전략이 바로 활사개공(活私開公)과 공사공매(公私共媒)를 통해서 행복공창(幸福共創)을 지향하는 공공철학이에요. 저는 그 공공철학으로부터 공공하는 문화, 공공하는 학교를 생각했어요. 우리 다사리문화학교가 그것이지요. 공공

철학은 본래 ‘공공하는 철학’으로 불리는데요, 제일 철학자 김태창 선생이 주창한 개념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활사개공은 사를 살리고 공을 활짝 여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공하는 철학의 말뜻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 활사라는 것은 자기와 타자가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상대방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나’가 진정으로 온전히, 충실히 사는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사리문화학교의 물들이 찾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지요?

중국의 전적 중에서 ‘공’과 ‘공공’이란 말이 제일 처음 출현한 것은 기원전 91년에 쓰여진 『사기』이다. 『사기』속의 ‘장석지전’(張釋之傳)이라는 편이 있다. 이 장석지는 한 무제 때의 사법장관이였다. 어느 날 한 무제가 지방에 순찰을 하는 길에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아래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 나왔다. 무제가 깜짝 놀라서 말 위에서 떨어졌다. 장석지는 그 사람을 체포하였다. 심문 이후 가볍게 징벌하고 그를 석방하였다. 이 때 무제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천자가 말위에서 떨어져 하마터면 큰 화를 당할 뻔하였다. 그런데도 그대는 가볍게 징벌하고 그를 석방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장석지는 무제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법이란 천자가 천자와 공(公)적으로 함께 하는(共) 것입니다(法者, 天者所與天下公共也)” 다시 말해 “법이 법다운 것은 바로 설령 천자가 귀하다 하더라도

또한 천하(만민)과 공(公)적으로 함께(共)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자어류』 속의 ‘공공’과 ‘천하’, ‘중인(衆人)’은 연계되어 함께 사용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나 개인의 독해에 의하면 주자는 관민의 문제를 처리할 때 ‘천하공공’을 주축으로 삼았다 그리고 민민(民民) 문제를 처리할 때는 ‘중인공공’을 주축으로 삼았다. 따로 대화하고 함께 움직이고 새로움을 열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참으로 성실하게 대응하였다. ‘천하공공’은 ‘수직방향 활동의 공공’이고 ‘중인공공’은 ‘수평방향 활동의 공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자의 이러한 사상은 일본의 ‘공공’과 관련 있는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17세기의 이토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 19세기의 요코이쇼난(1809-1869) 그리고 다나카쇼우조(田中正浩, 1841-1913) 이러한 지식인들의 학설 속에 모두 ‘공공’이라는 말이 있다. 또한 사용할 때 그 의미는 ‘공’과 구별이 되는 바가 있다. 예를 들면 요코이쇼난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천지공공의 실리(天地公共的實理)’였으며 다나카쇼우조(田中正浩)가 사용한 것은 ‘공공, 협력, 상애(公共協力相愛)’였다. 이러한 낱말들이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적 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실천생활의 의미가 더욱 강렬하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에 관한 사상은 『사기』와 『주자어류』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기학가(氣學家) 최한기(崔漢綺; 1803-1877)는 바로 ‘공공(公共)’ 또는 ‘공공(共公)’의 개념을 가지고 기학과 인정(仁政)을 주장하였다.

- 김태창 선생의 강연록에서

몸맘얼의 ‘참나’로 거듭나기

함석헌 선생은 『씨알의 설움』에서 “살·몸은 얼·혼의 참을 증명하는 도장이다.// 내 살 내 몸이 닿지 않은 것,/ 내 피 내 맘이 배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선생의 스승 다석 유영모 선생은 몸맘얼의 모습으로 제나(이기적인 나), 몸나(몸둥이로서의 나), 얼나(참나로서의 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없이 맘이 없고 맘이 없이 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몸 따로 맘 따로 얼 따로는 없는 것이지요. 함석헌 선생의 말씀처럼 얼·혼을 증명하는 도장이 살·몸이니 우리 몸을 어떻게 다스려서 ‘얼나’로 거듭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얼나의 존재로서 예수님을 보고 부처를 보고 간디를 봅니다. 그들의 얼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는데요, 부처 또한 그런 빛의 존재, 진리의 존재, 생명의 존재였습니다. 간디를 상상하는 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는 밝게 빛을 발하는 발광체에 다름 아닙니다. 빛은 어둠을 밀어내고 세계를 드러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빛에 비추인 ‘나’가 아니라 ‘나’ 스스로 밝아져야 합니다. 밝은 존재로서의 ‘나’를 옛 사람들은 ‘신명 든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신명(神明)은 내 안의 얼·혼(神)이 밝게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는 ‘얼이 어리고 있

는 존재(아이)'입니다. 열이 들면서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열이 든 존재)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늘 열이 어리고 있어서 '신이 난 존재'로 삽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신났다!", "신났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열을 잃거나 상실한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열간이'가 되는 것이죠.

열을 들깨워서 다시 신명이 되어야 합니다.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뇌들보가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는 좌뇌와 우뇌를 장고를 치듯 휘몰이로 치고 돌아야 빛을 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들보의 뇌신경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일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어두운 뇌를 가지고 삽니다. 왜일까요? 신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의 신명, 맘의 신명이 터져야 하는데 몸도 맘도 지쳐있습니다.

다사리문화학교의 기획은 단순히 청년문화기획자를 길러내는 곳으로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은 기획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한 바탕 빛무리로서의 은하를 이루는, 신명의 순간을 기획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선적인

강의식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물들 스스로 샘을 기획하고 그 샘을 모시고, 또한 모신 샘을 통해서 각자가 배움의 노트를 기록해 가는 과정 지향형 수업모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문화학교에서 모셔야 할 샘들의 이름과 강연제목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모한 수업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사리문화학교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철학을 수행하는 영국의 슈타이너학교나 러시아의 톨스토이학교, 덴마크의 그룬투비처럼 교재가 없는 열린 수업을 지향함으로써 물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개인의 교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2학기에 시작된 현장 프로젝트형 실기수업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하는 일은, 아니 교육이 하는 일은 '기획'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의 '예술화'를 물들이 체험토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문화적이지 못한 기획은 딱딱하고 엄숙하며 소통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만남'의 문화적 소통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판을 짰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눈부처'가 되는 상호 주체성의 '만남'이야말로 다사리문화학교의 철학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학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

천주(待天主)'하라고 말합니다. “한 일을 내 안에 모시니”라는 뜻인데요, ‘한 일’이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이 되었죠. 그런 다음 ‘造化定(造化定)’이라고 말해요. 한 일을 내 안에 모시니 내 몸에 드디어 조화가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우리 모두의 ‘너’는 일님입니다. 일님을 모시는 것이 곧 내 몸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일나’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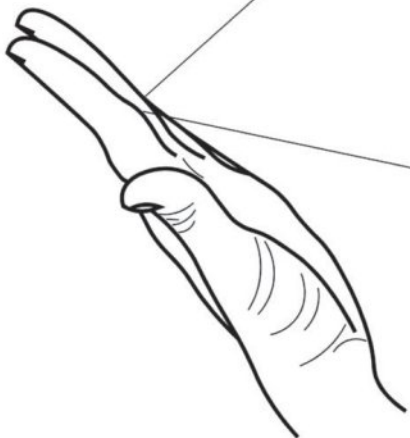
‘모심’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새로 쓴 것과 예전에 쓴 것, 그리고 다른 글에 있던 것들을 꺼내서 하나의 원고로 만든 것이에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으나 짧은 원고이니 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김태창 선생의 글은 물론이요, 이선민 선생이 쓴 『민족주의, 이제는 버려야 하나』(삼성경제연구소, 2008)와 한영우 선생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와 사학」(『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8)을 참조했어요.



다사리다난 多事里多難

김월식 교장



다사리다난 多事里多難

30여명의 청년이 모여서 6개월을 함께 놀았다. 사람이 모이니 말에 혼수를 두고 아는 체 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의심이 많아 다른 이의 말과 생각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는 이도 하나 둘 정체를 드러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말과 행동의 기세로 선동을 일삼고 편을 가르고, 타인의 말에 제 생각을 보태 또 다른 타인에게 옮기면서, 사실이 왜곡 되거나 변질시키는 자들이다. 말이 돌아 몇 사람을 거치고 나면, 발원지가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스스로 다짐도 하게 되었다. 소문과 같은 사건들이 바람처럼 휘 몰아치다 사라지고, 누구는 그 소문을 믿고 감동하여, 그 소문처럼 살기를 작정하여 삶의 태도를 가다듬었으니 성찰과 수행의 길로 들어섰으며, 누구는 그 소문을 비웃으며 합리

적이고 상식적인 그래서 처절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삶을 향해 돌진하는 삶을 선택했다. 혹자는 그들이 모였던 곳의 명칭을 '다사리'라 하면서 '다 살리는. 다 말하는 곳'이라하기도 하고 혹자는 그 곳을 '다양한 일이 발생하고 충돌하고, 교합하고, 소멸하는 다사리多事里'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중 하나는 그곳이 어떤 '다사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곳의 '다난多難'만큼은 확증적이며 리얼한 소문을 넘어서 회자되는 신뢰감과 신비감을 동시에 감지하게 하였으니, 어려움이 신화를 만드는 그 속성에 그곳의 그때 그 사건들이 존재한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다사리다난'多事里多難으로 불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라임이 맞추어 지며 자연스럽게 '다사다난' (多事多難 -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이 많음) 이라 불리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이 많음

세상 사 뭐 손쉽게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만 배움과 사림의 자리가 특히 더하다.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고 동료를 사귀는 곳이니 어려움이란 늘 존재하기 마련, 우리는 '다사리 학교'에서 타자의 지식과 경험을 관찰하고 의심하며, 완전한 동의와 배움에 거리를 두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과 끌림의 텐션을 조절하면서 그것에 견주어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기를 마주하는 것으로 배움을 채워가는 낯 선 경험으로 내몰린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방식은 요즘 교육 담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에 나오는 '보편적 가르침'을 나름 선진적으로 표절한 학습방식이다. 하지만 그리 진보적이지도 획기적이지도, 그리 윤리적이지도 않은 이 표절과 답습은 그의 인용처럼 '뿌리내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사라지지도 못하게 하는 어정쩡한 깨달음을 준다. 무슨 무지에서 오는 용기였는지, 효용성이 떨어지고 기능적으로 아쉬운 이 학습 방식은 나름 4년 동안 다사리가 정체성을 이야기 할 대 무심한척 쿨하게 취해왔던 제스처여 였고, 사실 투자대비 개량화된 성과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문화 기획의 특수성에 최적화된 교수법임을 재차 강조해 왔던 주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 터득했건 수많은 경험으로, 자신의 직관적 선택을 믿고 삶을 문화적 예술적 경지와 동일

시하는 가능성의 통로를 해매이다 수 많은 기회 비용을 지불하고서
야 비로소 얻은 온전한 성찰을 적지 않은 우리의 '성과'라고 뻔뻔하
게 혹은 불편하게 이야기 하는 동안 수년이 지나갔고, 어느 사이 다
섯 번째 수료생들이 다사리를 떠날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따지고
보면 뭐 하나 손 쉽지 않았던 우리의 '앎'의 과정들은 위와 같은 의미
에서 가둘 수 없는 파장을 갖게 하면서 대부분 앎은 파장으로 소멸될
지도 모른다. 또한 대부분의 수료생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자랑도 반성도 회고도 없는 네러티브

십 수년을 문화와 예술 씬의 화려하고 황량한, 따듯하고 스산한, 격렬하고 지루한 광야를 시간으로 썰어 그 납작한 층층에 자랑과 반성을 새겨왔다. 회고를 쓰기에 아직 젊고 이력이 일천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도 쪽팔리거나 아쉬운지를 몰랐으니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다. 그러다 어찌 어찌 아픔과 병을 얻어 환자患者씨의 신세계를 경험하니 문화와 예술이 그것을 통한 삶이, 가르침과 배움이 새삼스럽고 남의 일 같기도 하다. 병病은 전체가 병病이다. 모든 것은 모든 것 안에 있듯이 말이다. 이 글은 이렇게 맺길 바란다.

한눈에 보는 다사리문화학교

- 숫자에 담긴 의미



하나 = 한울 =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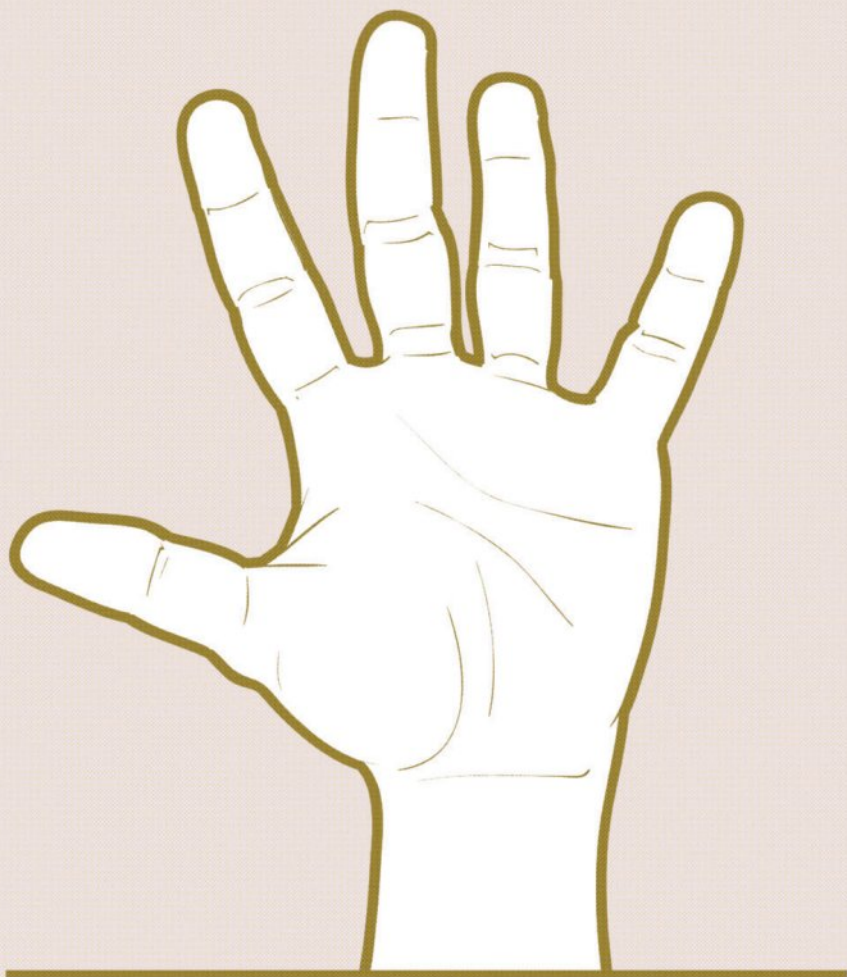
둘 = 들 = 대지



셋 = 씨 = 씨앗



넷 = 나엣(나) = 나라



다섯 = 다스리다 = 모두말하게하여
= 모두살리어
= 다사리

다사리 5기 키워드

“욕망”

교육철학

다사리

모두 다 말하게 하여
모두 다 살리어

문화

개인이 존중받고 서로가 함께하는
우리만의 문화, 소곤소곤 멘토링

스승과 제자의 상하관계가 아닌 멘토샘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에는
존중받는 개개인과 함께하는 우리만이 존재합니다.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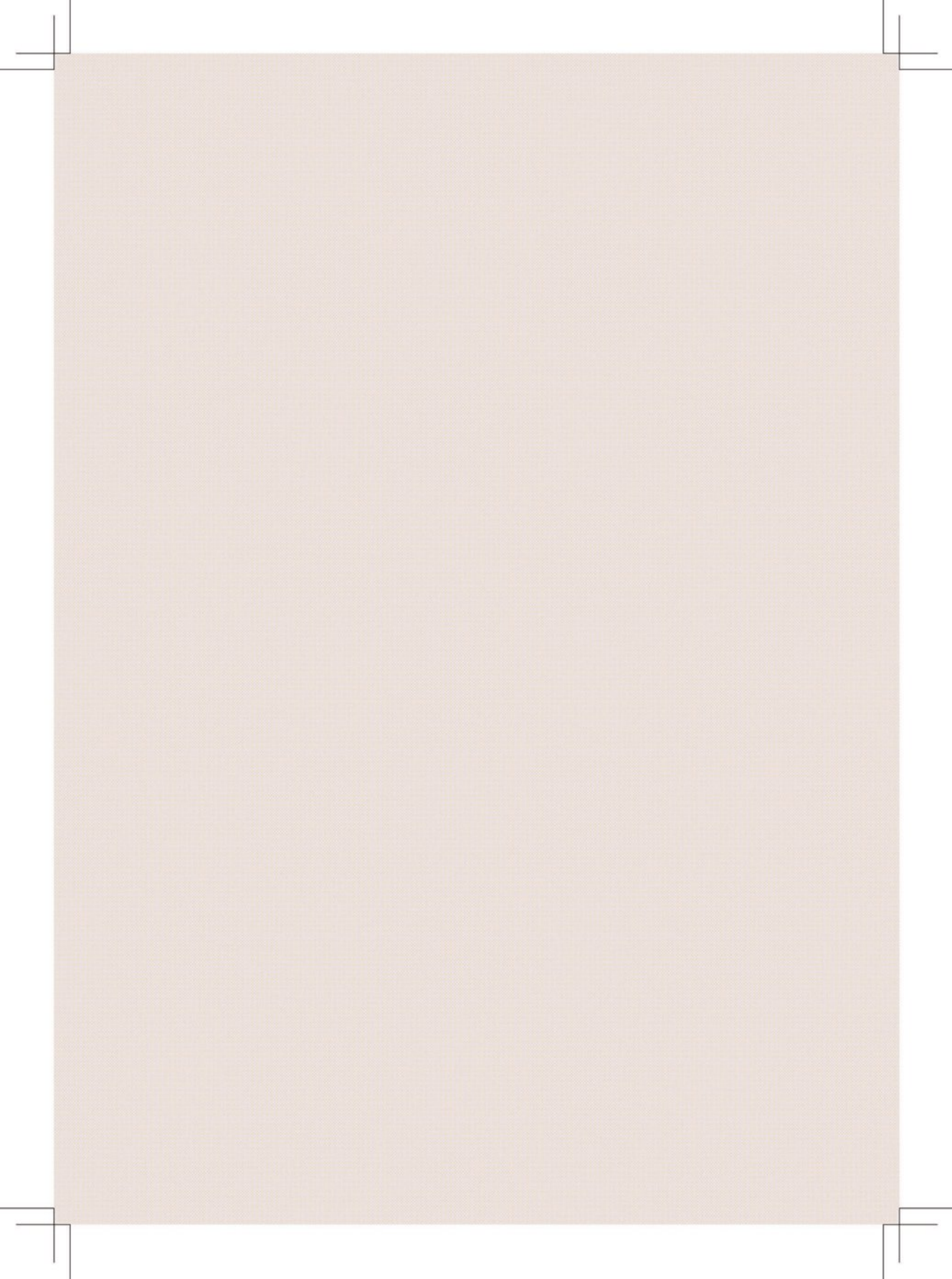
어떤 누구를 위한 기획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학교

교복도 없고 급식도 없지만
교정이 있고 우정이 있는

5기

우리는 다사리문화기획학교 5기
우리 모두 이곳으로 다시 오기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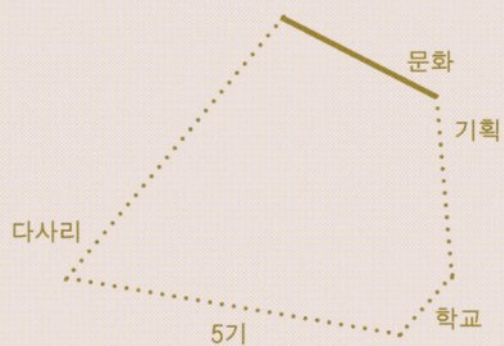
화

개인이 존중받고 서로가 함께하는

우리만의 문화, 소곤소곤 멘토링

스승과 제자의 상하관계가 아닌 멘토샘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에는

존중받는 개개인과 함께하는 우리만이 존재합니다.



다사리 달력



2018.5.23

다사리통합(남부,북부) 오리엔테이션

2018.5.24

김월식 교장선생님
첫 강의
"내 삶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문화기획"

2018.7.12

〈오전〉
강정석 멘토
오리워크숍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해산물)
〈오후〉
이채관 강의
"논리적 글쓰기"

2018.7.11

임재춘 강의
"미적체험,
미적교육"

2018.7.5

〈오전〉
주성진 멘토
오리워크숍 - 칼놀이X물놀이
〈오후〉
강정석 강의
"문화기획 사례
전시, 공공 프로젝트"

2018.7.4

강정석 주성진 강의
"이야기 하기, 글쓰기"

2018.7.18

임재춘 강의
"미적체험,
미적교육"

2018.7.19

〈오전〉
구어홍위(외부강사)
오리워크숍-지아오즈(중국만두)
〈오후〉
김상윤(외부강사) 강의
"오타쿠가 문화기획자로 살아가는 법"

2018.

김월식 멘토 현장투어
-개성공단 전시 관람
(문화역284)
with 박계리 선생님7.21

2018.7.25

강정석, 주성진 강의

2018.10.11

야학(백기영)
-풀지 않고
기획자의 배짱을
확장하는 방법

2018.10.4

야학(김상윤)
-알미운 문화지원정책,
영리한 문화기획자

2018.9.20

야학(박찬국)
-몸통의 문화기획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생활문화)

2018.9.15

이채관 멘토 현장투어
-주한미디어문화축제
(인천시민회관)

2018.10.18

야학(이채관)
-축제기획
(누구를 꼬셔서
 즐겁게 놀 것인가?)

2018.10.25

야학(김남수)
-접신의 문화기획
(주름속의 신화와 문화)

2018.11.1

야학(고영직)
읽는기술
(비만의 레퍼런스와
지식의 다이어트)
/야학수로식

2018.11.3~4

내몸사용설명서
워크숍(이가은)

2018.11.8

야학(김월식)

2018.11.15

야학(김월식)

2018.5.30
강정석, 주성진
이론강의
"기획적으로
생각하고 글쓰기"

2018.5.31
이채관 강의
"축제, 도시 재생, 도시연구"
임재춘 강의
"문화예술교육"

2018.6.7
강정석 강의
"문화기획이란?"

2018.6.9~10
다사리
통합워크숍(남부,북부)

2018.6.14
멘토분반
워크숍

2018.6.28
〈오전〉
임재춘 멘토
요리워크숍 - 김자요리
〈오후〉
이채관 강의
"도시재생과 문화기획"

2018.6.27
강정석 주성진 강의
"문제찾기, 연결하기"

2018.6.21
임재춘 강의
"배움과 인간의
성장"

2018.6.20
강정석 강의 "맥락의 발견"
주성진 강의 "육구의 발견"

2018.6.16
이채관 멘토 현장투어
문화비축기지
(상암동 ▶ 문래동)

2018.8.8
아나바다 옥션파티(이연우)
피의 연대기 영상 관람(이가은)

2018.8.9
마트는 넓고
세상은 넓다(한혜성)

2018.8.9
다사리 야학 시작(김종길)
- 광야는 넓고 고수는 많다
(압축성장대한민국문화사)

2018.8.15
양말목으로
방석 만들기(이연우)
골반강화운동(이가은)

2018.9.13
야학(민운기)
-연간생심 도시재생
(문화기획으로
과연 가능한
상상인가?)

2018.9.6
야학(박도빈)
-편견으로부터 읽기
(사람책 도서관)

2018.8.
야학 (조재경)
-메이커스와 제작문화
(놀이와 만들기,
덕후와 문화다양성)30

2018.8.29
동양식 북바인딩
이면지노트 만들기(이연우)
대안 속옷 만들기(김가영)

2018.12.13
다사리 5기 수료식

배움의 기회, 실천의 힘, 효과의 성찰

강정석



배움의 기회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배움’의 기회가 열려 있는 장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멘토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 강사들이 다사리에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전수했고, 다사리의 구성원들은 미약하게나마 ‘배움’ 수 있었다. 물론 문화기획은 기본적으로 실행력을 전제로 한 굉장히 실천적인 분야이며,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을 찾아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도 많다. 그러나 문화기획이라는 전문적 ‘분야’ 이전의, ‘삶’의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들은 더욱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움은 곧 개인적으로는 삶을 더 ‘잘’ 살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면서, 나와 사회 그리고 자연을 연결하는 실용적인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결의 기술’이 곧 문화기획에서의 ‘전문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실천의 힘

실천, 특히 '문화적 실천'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갖고 있다. 실천을 행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며, 또는 이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의 감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어반복이겠지만) 문화기획은 기본적으로 '실천적'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실천의 주체나 대상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서 팀을 구성하고 문화적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올해 여러분들은 많은 시도를 했고, 또 많은 공부를 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보람과 성찰의 지점을 각각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두 하나의 '힘'을 구성하여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의 지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효과의 성찰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기획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사회적'이란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사회'적 맥락을 잃은 문화기획은 그 자체로 실천적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행한 다양한 기획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 놓여 있으며, 어떤 '변화'의 지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보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그 다음'에 대한 전망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한 이야기. 미래는 한없이 불투명하며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은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된다. 즉, 불안을 항상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처해 있는 냉정한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을, 특히 '문화기획'을 배운다. 기획력을 키운다는 것은 곧 미래를 전망하고 설계하며 이를 실천할 역량을 키운다는 뜻이며, 그 앞에 '문화'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그러한 역량이 '나'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그리고 '자연'의 수많은 존재들과의 접속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접속과 연결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계속 활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서 긍정성을 강조하라

이채관



모두가 함께 말하고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을 문화기획의 과정을 통해 탐구하는 다사리학교가 이제 끝났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실패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문화기획을 통해 표현하거나, 우리의 전통악기가 주는 미적 체험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력한 기획, 그리고 소리의 명상적 효과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기획들이 만들어졌다.

서로 말하고 들어주며 의지하는 친구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삶을 해석하고 재구성해가는 과정으로서의 문화기획, 살고 있는 사회의 불만과 짜증 혹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기획, 삶의 긍정성으로 무한한 에너지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문화기획을 상상하고 노력해 온 일 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일상과 비일상적 상상 사이에서 궁핍거리며 살아온 그 일 년을 응원한다.

그 사이(In-Between)에서 방황하며 찾는 길이 새롭고 창의적인
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

처연한 등을 보이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당
당히 맞서 자기 존재를 확인시켜 나가는 긍정적인 기획자의 모습을
기대한다. 부끄럽게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보다는 자기가 지닌 ‘재
주’를 마음껏 드러내는 문화기획자의 모습을 기대한다. 자기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자의 유쾌함을 즐기는 문화기획자가 되
었으면 한다. 타인들과 교감하고 공감하며 함께 살아가고 만들어가
는 힘을 가진 문화기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긍정성을 강조하라.

우리는 항상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기에 새로울 수 있다.

항상 언제나 두렵고 어려울 때 당신들의 비빌 언덕이 되고, 부끄
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

즐거웠다.

건투를 빈다.



삶이 비치는, 옛보게 허용하는 일

임재춘



‘기획’을 세상과 주변에 대한 많은 관심거리 가운데서 한번 해봄직한(doing) 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를 처음 접하는 이들은 참 막막하게 여길 것이다. 시간과 공간, 사람 등에 미쳐 익숙해지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이 과정은 적잖이 곤혹스러운 일이다. 누군가에겐 ‘그 자체’가 도전이 되기도 한다. 멘토링은 그러한 어색함을 넘어 문화기획을 한다는 것이나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 좀 더 빨리 친숙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고백하자면 매 기수를 맞이하고 뭔가를 기대하는 다수의 그들 앞에 설 때면 나 역시도 낯설고 긴장이 되어 준비했던 이야기를 충분히, 차분하게 다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로젝트로 하고 싶은 게 선명하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막연히 ‘이런 거는 어떨까요?’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꺼낸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했던 이들도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이어가다보면 ‘어? 아닌가?’라고 주워 담기도 한다. 초반에 자신의 모습을 꺼내놓았다 주워 담았다하면서 다사리에, 문화기획에, 배움에,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을 얼마나 내어 놓을지 담금질을 하게 되는데 멘토링은 그 판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다사리에서 문화기획이라는 행위를 구체화할 때 정서적 낯섬의 긴장을 풀어내는 것과 문화기획의 학습이 교차되는 탓에 개인적으로 초반의 멘토링은 다소 쓸데없을 것 같은 대화에 많이 집중하곤 한다. 성급하게 ‘기획의 아이템’을 기술적으로 정리하기보다 서로가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다.

5기는 이전 기수와 비교하여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환경의 변화를 겪었다. 다소 늦은 6월에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점, 의정부를 거점으로 한 북부 다사리가 동시에 운영되었고 참여인원이 많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초반은 느슨하게'라는 멘토링의 방향을 상대적으로 압축하거나 생략되어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8명으로 멘토링이 시작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5명이 5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명은 다른 멘토링 프로젝트와 협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중간에 과정을 완주하지 못한, 왜 그만둘 수밖에 없는지를 살피지 못한 두 명이 마음에 걸린다. 어쨌든 이런 환경의 변화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낮설 여행 • 동그라미 축제 • 들려줘Bar • 사운드 오브 상상캠
퍼스 • 유학사기사레집

난 올해 공교롭게도 이 다섯 개의 프로젝트 현장을 돌아보지 못
했다. 사정이 있어서이지만 아쉽고 미안하다. 하지만 한 개인의 마음
이 공공의 장에 꺼내어 지는 과정을 진지하게 목격하였기 때문에 마
치 본 것만 같다. 거기에 있었던 것만 같다.

우선식 • 이연우 • 이지선 • 지행숙 • 홍준형

기획이 그 사람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닮는 건 당연하다. 이
젊은이들의 기획에서 나는 그들의 삶을 엿본다. 이들의 기획서는 자
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
는다. 다만 인생 어느 순간의 생각이나 사건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
은 부분일 뿐이다. 그럼에도 스스로 써내려간 자기소개서 보다 더 생
생하게 느껴지는 그들의 삶과 꼴이 그들 기획의 진실함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주성진



* 먼저 이 소중한 지면을 다소 사적인 느낌의 편지형식으로 전하게 된 것을 다 사리의 모든 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면상 모두에게 편지를 보낼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내는 대신 편지의 특성에 맞게 한 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꼭 한 명에게만 보내는 글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가은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치명캠프 다음날 통화할 때도, 가은이 칼등으로 고기 썰면서 안 썰린다고 뭐라 하던 날에도, 내가 너무 다른 친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가은에게 마음 아프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만 늘어놓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그 전부터도 저는 치명캠프 팀에게만 많은 걸 요구하는 가혹한 멘토였던 것 같아요. 주디스 버틀러 같은 이상한 책을 읽어 보라지 않나, 설문조사를 백 명 이상 대상으로 해오라고 하고, 전체 멘토에게 별도의 브리핑도 요구하고 말이죠. 스스로도 '왜 그랬을까?' 여러 번 생각해보았어요. 사실 '정확히 이런 게 필요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을 정리해보면 그 이유는 아마도 저에게 <치명캠프>가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 가온이 <스스캠프>라는 이름으로 청춘남녀가 서로를 몸으로 이해하고, 원나잇 스탠드보다 더 나은 섹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캠프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프로젝트의 의도와 내용에 1도 공감하지 못했어요. 제 주변에는 하룻밤 자고나면 스_텐트 했다는 친구들은 좀 있지만 스탠딩은... 암튼, 프로젝트가 전제하고 있는 현상과 문제점들이 모두 제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점이 <치명캠프>가 제게 갖는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사리에 결합하고 나서 항상 가졌던 고민에 답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들었고요. 첫날 제 소개를 할 때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저는 “문화기획”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누군가가 누군가의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유로 당연히 다사리 프로그램도 참여자를 “기획”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문화적이고 무엇이 덜 문화적인지, 무엇이 공공적이고 무엇이 덜 공공적인지는 학교나 정책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한명 한명의 생각이 모여서 결정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사리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참여자를 “기획”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어떤 방향을 갖는가?’,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는가?’ 돈을 주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답을 주기 힘들어지거든요.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사리 문화기획학교의 지향은, 누가 꽃는 깃발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사리 구성원들의 생각과 그 생각의 실천으로서의 도전들이 모여, 귀납적으로 정리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치명캠프의 기획안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의견을 여쭙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문화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냐?', '공적자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자신 있게 반론하지 못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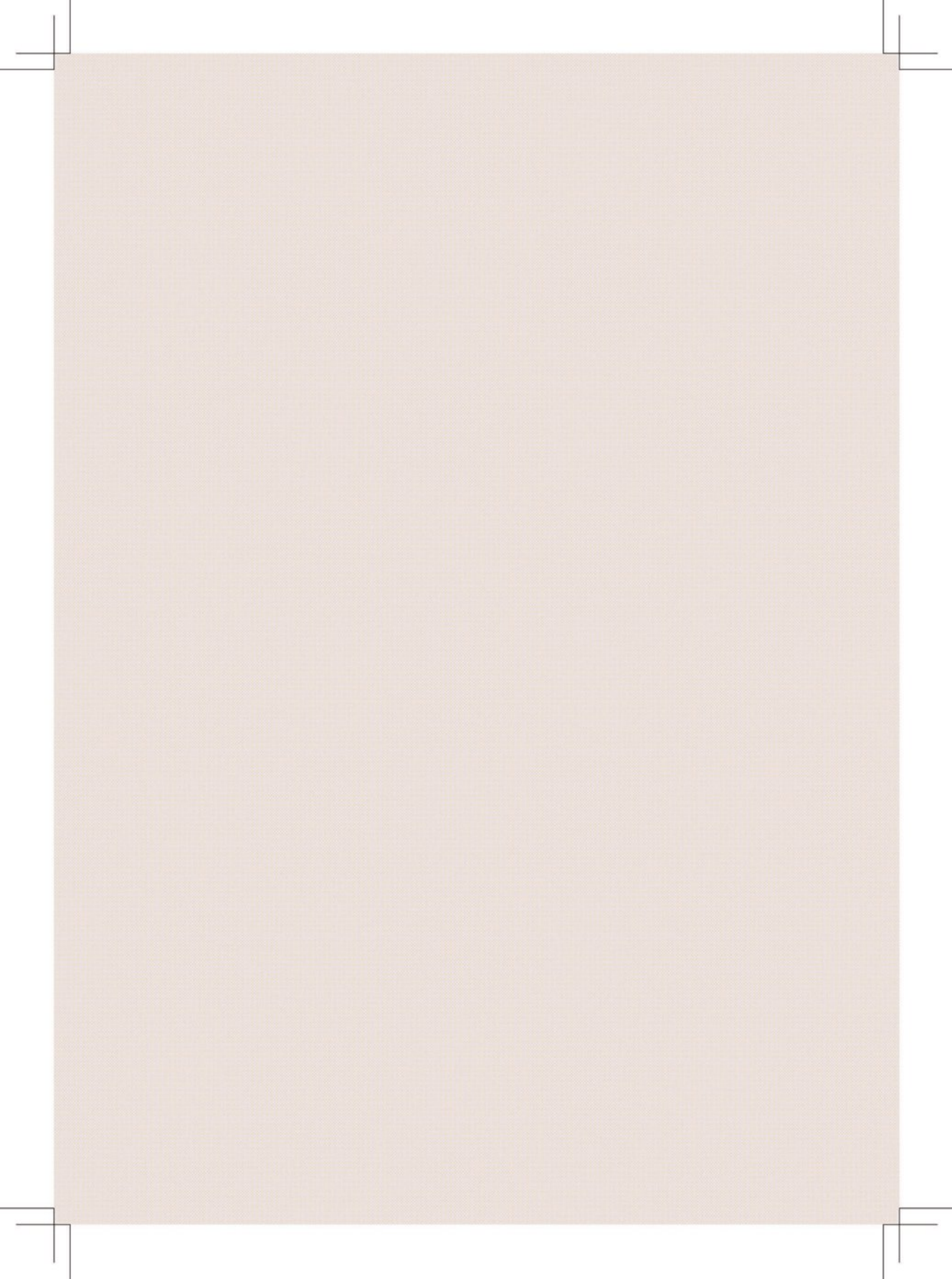
하지만 세분은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치명캠프에 가서 얼마나 문화기획적인지, 공공적인지 보고 느꼈어요. 이제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문화기획이고, 이것도 공공적인 일이며,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지향이 담긴 프로젝트라고.

고마워요!

2018. 12. 7.

주님*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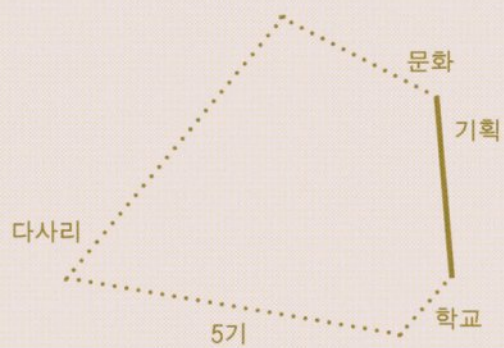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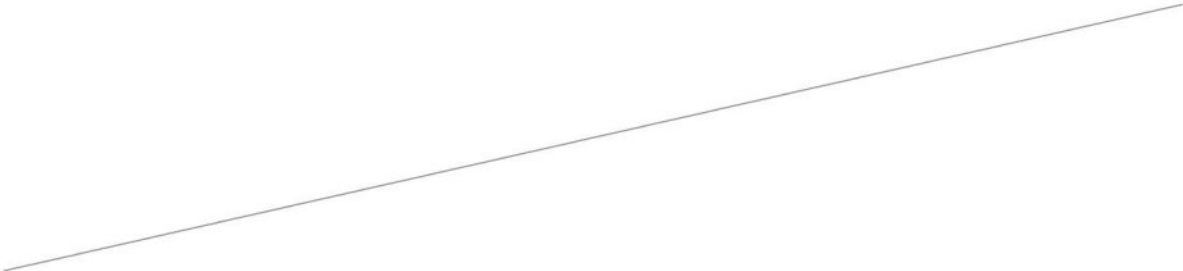
어떤 누구를 위한 기획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기

획





‘개인적 욕구’에서 시작한 유학사기사례집 #1

홍준형



글을 쓰는 것을 배우려고 다사리에 들어왔다. 독립출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 들어온 나는 다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하려 했다.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욕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문화기획의 출발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문화기획을 하면서 ‘개인적 욕구’와 그것을 표출해내고 도식화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교육이나 선택한 것들에서 시작하려 했지만 공익적인 색갈이 짙어질수록 나의 색은 점점 열어져가는 걸 알았다. 그 무렵 수업 도중 나온 이야기를 발단으로 나는 ‘사기’에 대한 콘텐츠를 생각하고 발전시키게 되었다.

나는 외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며 '유학사기'를 당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당했고, 그 이후 삶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사업가'를 지칭하면서 다니는 많은 '사기꾼'들을 만나게 되었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늘 곁에 두었다. 물론 일은 같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같이 '유학사기'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 도망쳐 나온 유학생들을 만났고 그들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지냈다. 어찌 보면 돌아갈 수 있는 본국의 삶도 팍팍해서 도망쳐 나온 이들이기에 그곳에서 더 없이 잔인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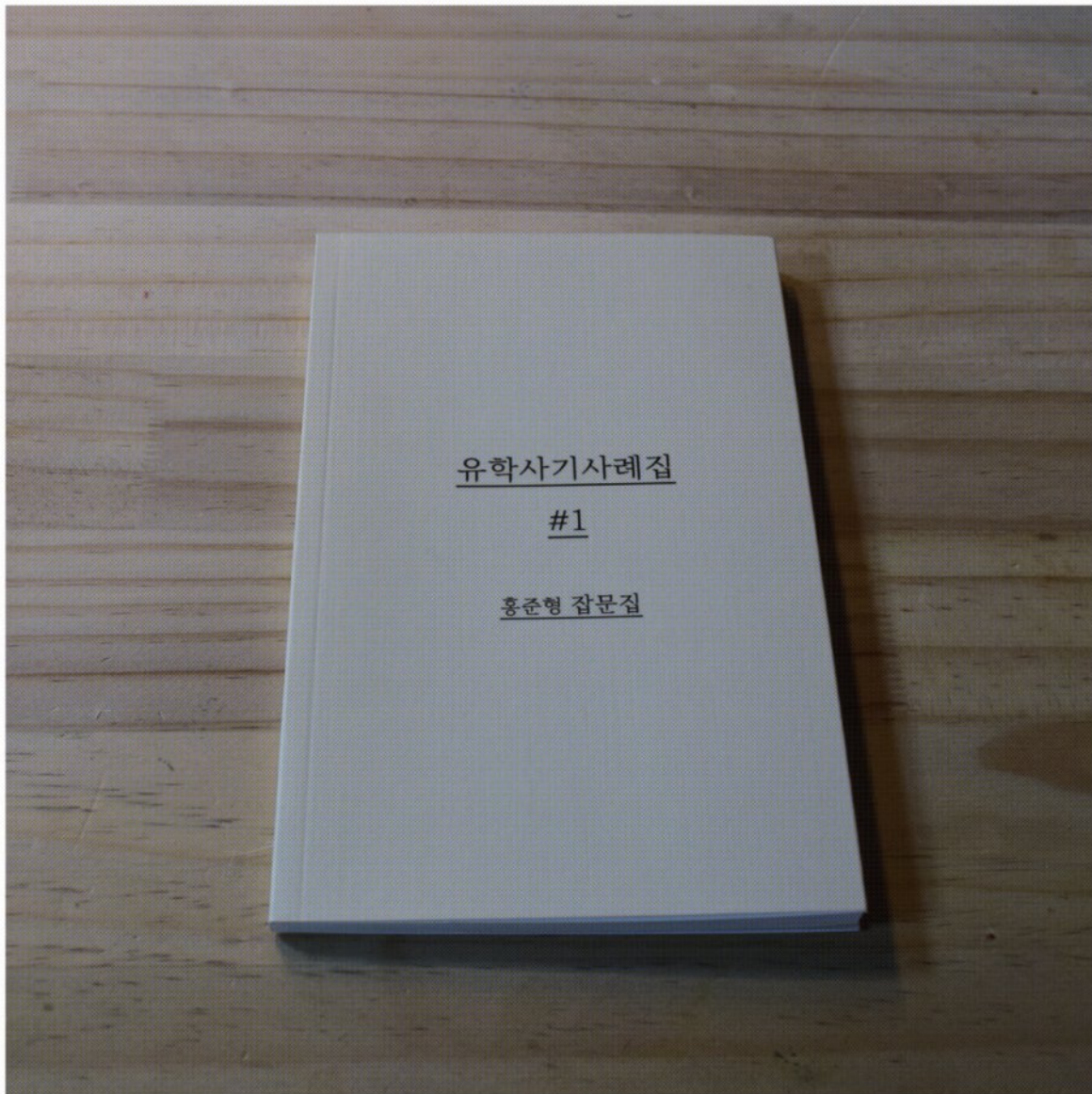
나의 유학사기 이야기를 시작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들을 묶어서 글을 쓰고 편집하여 책을 만들어 내려 한다. 그 의도는 분명하다. '사기꾼'들이 없어지기를, 그리고 반성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외국에 꿈을 가지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프로젝트를 하며 아쉬운 점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홍보를 하는데 기존 독립출판이 하는 방법인 SNS로 홍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꾸준함으로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사기' 콘텐츠의 책을 만들려고 생각한다. 또한 펀딩을 받고 다른 매체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이 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유학사기사례집

#1

홍준형 잡문집



낮설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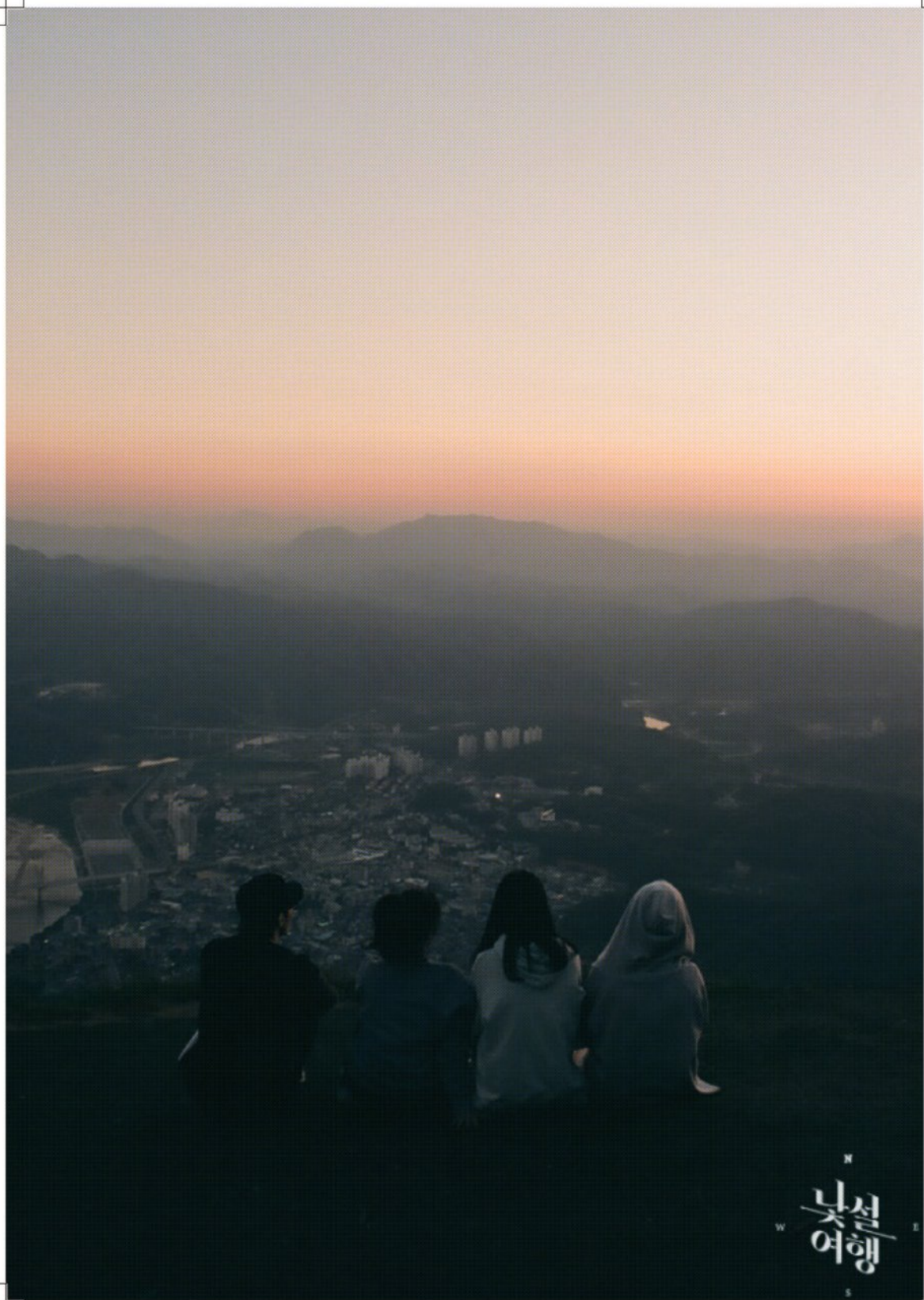
우선식



1. 프로젝트 소개

“공적인 욕망이 아닌 사적인 욕망”, 오로지 나만의 사리사욕을 추구해보자는 다짐에서 〈낮설여행〉은 출발했습니다. 제게는 오래전부터 현대사회의 고질병인 ‘디지털의 폐해’와 ‘빨리빨리문화’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더할 때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라는 신념 하에, 없어도 괜찮은 것들을 하나둘 덜어내는 힘겨운 과정을 지나 비로소 〈낮설여행〉이 탄생했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덜어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여행은 이전보다 무척 가벼워지고 낮설어졌습니다. 빠른 문화에 익숙해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낮설음으로 깨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위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핸드폰 & 내비게이션 없이 여행하기’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여행의 참가자들이 충분히 〈낮설여행〉에 담긴 의미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W ^M _S ^E
나를
여행

〈낮설여행〉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가을날, 〈낮설여행〉의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은 체험 프로그램 〈낮설여행사〉가 <동그라미 축제> 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낮설여행〉이 장거리-자동차 여행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라면 〈낮설여행사〉는 근교-걷기 여행을 기반으로 한 단시간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낮설여행사〉는 언제 울릴지 모르는 참가자의 핸드폰을 잠시 맡아주고 참가자가 일회용카메라를 들고 짧은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총 18명의 참가자가 경기상상캠퍼스를 누비며 짧은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장치 없이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핸드폰 없이’, ‘일회용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떠난다는 콘셉트 자체만으로도 ‘낮설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낮설여행〉과 〈낮설여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촬영한 일회용카메라 사진은 행사가 끝난 2주 뒤 각 참가자에게 보내드렸습니다.

2. 〈낮설여행〉 참가자 후기



"청주 달천역에서 가로수길의 사과를 먹고, 예정에 없던 횃집의 점심 정식과 의림지에서의 오리배와 맑은 하늘, 영월의 뗏목에서의 여유로움, 봉래산 정상에 누워서 보았던 하늘, 그리고 마지막 국도변에서의 은하수. 그때의 추억은 29살의 가을날을 떠올릴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풍경일 거예요."

_참가자 김리현



"막상 낯설여행 참가자가 되어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되었을 땐, 낯선 이들과 낯선 곳을 향해 온종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적지 않게 부담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아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갔던 대화는 이후 '전자기기 없이, 오직 무전기과 지도만을 이용한' 본격적인 <낯설여행> 속에서 서로를 위해 힘써 짓는 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여행길이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노를 짓는 과정에서 웬지 모를 성취감과 짧은 시간이지만 금세 단단해지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참가자 이종훈

"평소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저였는데 의외로 여행 갈 땐 꺼두던 게 기억났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온전히 내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필름 카메라는 너무도 힐링이었어요. 한 번의 셔터를 누를 때 고민하는 저라니!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진 속 저는 항상 웃고 있네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낯설 여행 팀원들과 스태프 언니 오빠들 모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모르는 게 저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 반가워요."

_참가자 방설아

"잘못 들어선 길로 만난 예상치 않은 멋진 드라이브길. 유난히 강
을 끼고 도는 코스가 많았던 우리는 가을여행을 만끽하기에 충분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서로 확연히 다른 나이에 서로를 공감하고 이
해하게 된 차 안에서의 수다는 이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번
호가 매겨진 도로길 지도를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머리를 맞대
고 재미있어 웃고, 핸드폰이 없음에도 순간순간 길을 찾게 되어 또
재미있어 깔깔대고.. 늘 궁금하면 바로 검색해서 해결했던 일상이 아
주 오래된 일처럼 아련히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_ 참가자 지행숙



"처음에 핸드폰이 없어서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 것도 생소하고 일회용 필름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사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카메라에 담겼을 여행의 흔적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나중에는 기대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네요. 초점도 안 맞고, 흔들리고, 어둡고. 그런 자연스러움이 더욱 여행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꼭 짜인 틀에 박힌 일상이 아닌 자유로움을 위한 탈출구 같은 여행이 된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_참가자 강혜민



"핸드폰이 없어 중간중간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싶었던 순간을 기록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덕분에 여행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목적지,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맞게끔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혼자 체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여유롭지 못한 제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낯설고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더 배려하며 여행을 하는 모습들이 더 좋은 여행이라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기대도 없이 떠나서 감동이 배가 된 것도 같습니다. 영월에서 배를 타고, 노을도 보고, 맛있는 국수도 먹고 밤하늘 별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_참가자 이민진

"좀 더 자유롭게 탐색하고 소통하고자 만든 스마트폰이 오히려 더 사람을 옥죄어 오게 만드는 21세기 첨단지식산업 문명의 허망함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별마로천문대에서 지는 해와 영월 시내를 바라보며 그동안 너무 빨리, 가성비라는, 효율적이라는 이러한 가치에 휩쓸려 정작 깊고 고요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과 지금을 살아내는 여유를 잃어버리며 살지 않았나 하는 성찰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인생은 짧고, 소중한 것은 느려야 보인다(?)."

—참가자 전성균



3. 기획자 후기

“동물원이 부릅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란 의미일까.’”

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임재춘 멘토샘
과 멘티 연우, 준형, 지선, 행숙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다사리 동기들에게도요. 행복했습니다!

공공프로젝트 공혈견 알리기 프로젝트

박윤정, 양현아, 이현수



프로젝트 소개 및 결과

공혈견 알리기를 주제로 ‘포레포레’와 ‘동그라미축제’에서 각기 다른 현장 체험 게임을 기획하였으며 온라인 홍보 목적으로 공혈견을 주제로 한 음악 제작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포함하여 총 세 개의 작업물을 완성했습니다.

〈공혈견 알리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기획물인 뮤직비디오는 작사가 및 시나리오 작가 이현수, 연출 및 촬영감독 양현아의 작품입니다. 작품 속 세 명의 배우들을 각각 ‘남’은 건주, ‘여’는 반려견, ‘그’는 공혈견으로 의인화하여 연출하였습니다. 건주와 사이좋은 짝으로 지내는 반려견에 비해 공혈견은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반려견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당하는 공혈견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포레포레’에서 진행한 연극형 게임 〈나를 찾아줘〉는 라운드별로 지급되는 단서를 통해 공혈견의 존재에 대해 추리하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참가자들은 출발점에서 〈나를 찾아줘〉이라고 쓰여있는 낱말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공



혈전의 네 가지 감정 (슬픔, 분노, 예민, 기쁨)을 관람합니다. 연기자들은 각자 자신의 감정 연기를 마친 후 <공혈전>날말을 구성하는 자음 중 한 가지 자음을 직접 단서로 제공합니다. 네 가지 감정 연기와 네 가지 자음을 통해 정답을 추론한 참가자는 최종 목적지에서 <공혈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동그라미축제’에서 진행한 체험형 게임 <빨간림보:선 넘어 산>은 박물관의 미술품 도난방지 레이저 시스템에서 착안한 게임입니다. 나의 반려견이 불시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응급 수술을 위한 혈액 팩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시작됩니다. 게임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견을 살리기 위한 혈액 팩을 구하기 위해 참가자는 빨간 실이 무작위로 뒤엉켜있는 구간을 통과하여 다트 핀 세 개를 얻습니다.
2. 세 개의 다트 핀을 혈액 팩이 그려져 있는 과녁에 던집니다.
3. 세 번의 다트 던지기 기회를 통해 총 35점을 얻은 참가자는 혈액 팩 얻기에 성공합니다.
4. 혈액 팩을 구한 참가자는 게임을 마친 후 출구로 가는 도중, 내가 던진 다트 핀이 고스란히 공혈전에게 꽂힌 것을 알게 됩니다.
5. 얻게 된 혈액 팩 또한 공혈전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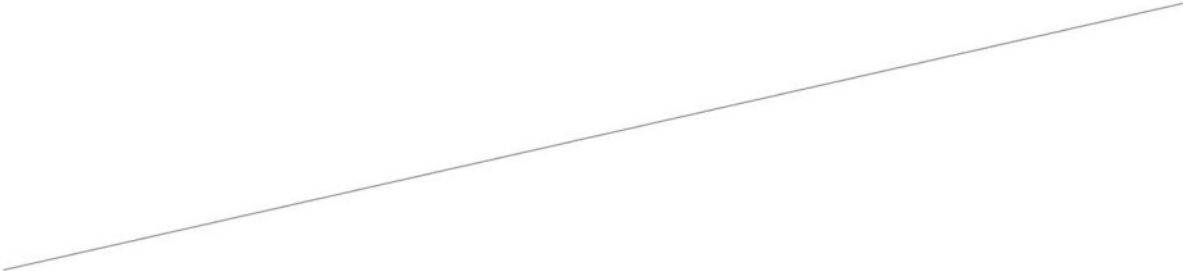


프로젝트 후기

기획 초기 예상했던 참여자는 ‘포레포레’와 ‘동그라미축제’ 모두 합하여 50명 내외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200명 내외의 참여자들이 직접 연극 관람과 게임에 참가하였습니다. 게임을 마친 후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굿즈(물병, 스티커, 소책자)의 반응 또한 좋았으며 연극과 게임 구성에 대한 호응 또한 매우 흥미로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공혈건이 처한 현실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기획목적이었던 공혈건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대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쉬웠던 점은 공혈건의 존재를 알린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고민이 부실했던 점입니다.

운영 면에서는 게임을 마친 이후 참가자들의 소감을 섬세하게 기록하지 못한 점, 체험 이후 공혈건에 대한 정보 전달이 미흡했던 점, 게임 규칙 설정이 치밀하지 못했던 점 등이 아쉬웠습니다.





나구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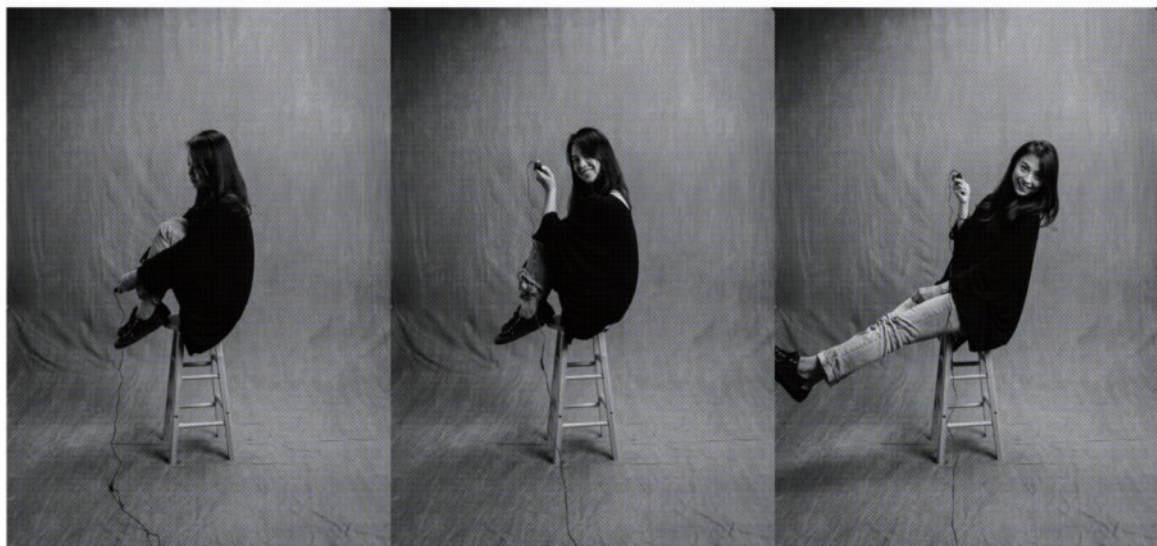
차해란



프로젝트 소개 및 결과

안녕하세요. [나구나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사리문화기획학교 5기 차해란입니다.

[나구나프로젝트]는 '남이 볼 때 예뻐보이는 selfie 말고 진짜 나다운 모습을 찍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어요. SNS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 가서도 그 시간에 집중하기 보다는 인증샷 찍기에 바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찍힐까에만 집중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집중하도록 방향을 틀고 싶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봤죠. SNS에 올릴 사진과는 다른 사진을 고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가장 나다운 사진을 고르는 과정을 통해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자화상촬영’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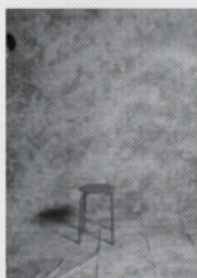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은 미리 카메라와 조명, 배경지를 설치하고 프로젝트 참여자는 5분 동안 리모컨으로 자유롭게 촬영을 합니다. 촬영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공간 구성을 했어요. 모든 참여자가 5분이라는 똑같은 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6컷을 찍은 분도 있고 100컷 넘게 촬영한 분도 있어요.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성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촬영 후엔 5분 동안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가장 나다운 사진’을 고르는 작업을 했어요. 혼자 카메라 앞에 서서 스스로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지만 이내 빠져들게 되었다는 참여자도 있었고, 자신의 표정이 새롭게 느껴졌

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의 전신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나의 움직임에 대해,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 모습이 나구나, 나의 오늘을 더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가셨으면 했습니다.

촬영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고 전시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과 마찬가지로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 3층에서 진행하였는데 작은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사진과 프로젝트 의미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했어요. 다른 이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스스로에게 솔직한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프로젝트 전체를 마무리 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후기

다사리문화기획학교 수업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였고 결국 ‘사진’을 통해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매일 사진을 찍고 손님을 응대하지만 [나구나프로젝트]에서는 사진의 또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직접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게 하고 고르는 과정에서 신기해하고 즐거워 하는



분들을 보니 색다른 경험을 선물할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촬영, 셀렉 후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 인상 깊었던 후기를 몇 가지 소개할게요.

“뭔가 조금 더 자유로운 기분인 것 같고 저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이나!! 나는 생각보다 아름답고 멋지고 힘이 있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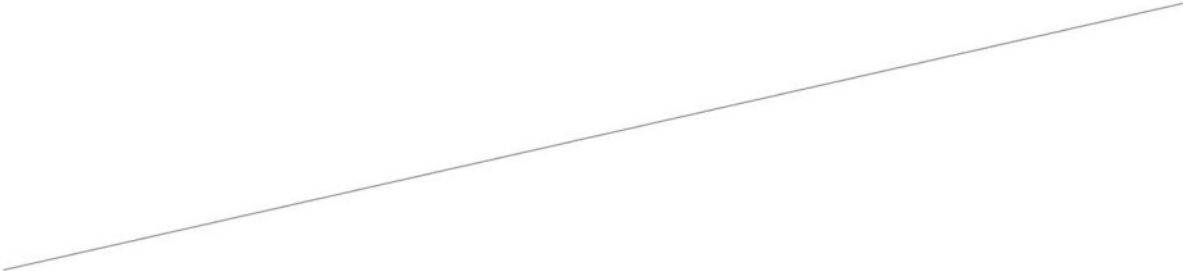
“내가 생각보다 너무 안 멋있는 거 같고 항상 머릿 속에 그린 나는 너무 먼 그림이란 걸 느꼈어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셔터 소리가 원래 이렇게 컸나? 그리고 한 컷 한 컷 찍으면서 나에게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부끄럽다, 요즘 힘들다, 그래도 힘내자 등)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행복한 날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참여해주신 분들이 프로젝트 과정을 함께 즐기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프로젝트 기획, 실행 단계에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저에게도 다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김가영. 유진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 관심을 직접 일상에서 실천하고 싶고, 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싶었다. 개인의 욕망을 바탕으로 문화 기획을 구상해보라는 멘토님들의 지도를 받아, "친환경"적인 행사를 기획해보기로 했다. 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끼가 기획자인지라, 거창한 행사를 촌촌하게 마련하기에는 감량이 부족했기에 큰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단란한 규모의 '소풍'으로 결정했다. 어떤 사람들과 모여 어떤 소풍을 열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온라인에서 각자 활동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터들이었다.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발생시키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라고 한다.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여 쓰레기를 줄이려는 제로 웨이스터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쓰거나,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한다) 개인의 불편함과 수고를 무릅쓰고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 내 친구 중에도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를 쓰거나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티슈 한 장 쓰고 버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손수건을 가져올 걸' 이라고 후회하는 마음을 공감해줄 친구가 없으니 좀 외로웠다. 거기다, 너무 유난스럽게 구는 것 아니냐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늘 무겁게 느껴진다.

"나만 미세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걱정되나?"

"나만 너무 유난스럽게 행동하나?"

내 행동들을 너무 유별하지 않다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에 용기를 내기 위해 비슷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기로 한 것이다.

제로 웨이스트 소품의 부제는 그래서 '유난스러운 사람들, 무난해지기'였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력이 유난함으로 폄하되지 않도록 동지들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제로 웨이스트 소품인 만큼, 행사의 홍보부터 진행까지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한번 쓰고 버리게 되는 현수막, 포스터를 인쇄하지 않고 SNS에서만 파일로 홍보했다. 소품 신청서도 종이로 인쇄하지 않고 전자 신청서를 활용했다. 소품 참가자에게 장소 등을 안내하기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안내 표지 등 쓰레기도 만들지 않았다.

각자 싸온 제로 웨이스트 도시락을 먹으면서 소풍은 급작스레 시
작이 되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서로 소개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늦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오자마자 밥을 먹게 되어 좀 당황
할 수 있었다.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더 즐겁게 이
야기 나누고, 밥도 편하게 먹었을 텐데……. 기획자의 부실함이 제일
티가 난 부분이었다. (쩍)

그래도 어색한 점심시간을 거쳐, 바자회를 진행하자 참가자의 반
응이 확실히 좋아졌다. 본인에겐 불필요한 물건이지만, 소풍에 온 다
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을 미리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확인했기에 주인을 찾지 못하고 다시 가져가는 일은 없었다. (버리는
달력을 이용해 직접 만든 공책부터, 직접 길러 수확한 천연 수세미,
주말 텃밭에서 기른 허브로 담근 허브 식초, 쌀 빨대, 목공예로 직접
만든 꿀봉까지!) 다채로운 물건들이 펼쳐지자 어색하던 분위기는 확
실히 풀리고 즐거운 나눔의 시간이었다.





소풍 참가자를 위해 준비한 선물 제로 웨이스트 도구 (그물 가방, 못난이 대나무 칫솔,

현 셔츠로 만든 젓가락집과 스테인리스 젓가락, 직접 제작한 1인 용 피크닉 매트, 손수건) 까지 제로 웨이스트 선물을 드리고 나눔 물건도 더해지니 훨씬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각자 나누는 제로 웨이스트 이야기보따리는 더 재미있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소개받기도 하고 궁금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분위기였다. 환경에 관심이 없는 주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유난스럽고 유별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지만 제로 웨이스트 소풍에서는 일상을 공감하는 평범하고 무난한 우리였다.

제로 웨이스트를 하면서 겪게 된 어려움이나, 어떤 방식이 친화적일지 늘 하게 되는 고민, 그리고 사회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공감되는 이야기였다.

다과로 준비한 비건 케이크와 차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가져왔던 도시락통도 천연수세미와 고체형 주방비누로 설거지도 했다. 엄마와 함께 소풍에 참가하게 된 5살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천연 수세미로 설거지 하는 모습에 다들 사진을 찍느라 바쁘기도.

설거지를 마치고 경기상상캠퍼스 주변을 산책할 수 있었다. 날이 너무 좋고, 가을 분위기 흠뻑 나는 풍경에 여유롭게 소풍을 만끽할 수 있었다. 날은 참 좋았지만, 11월 3일 당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서둔동 마을 축제가 같이 열리는 바람에 매우 큰 음향을 강제로 듣게 된 것은 좀 아쉬웠다.

제로 웨이스트 소풍을 직접 기획해보니, 아쉬움이 없는 행사를 기획하려면 좀 더 촘촘히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더욱 느꼈다.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렇다고 도전 못 할 정도는 아니라는 용기도 얻었다. 환경에 관련된 문화 행사들이 점차 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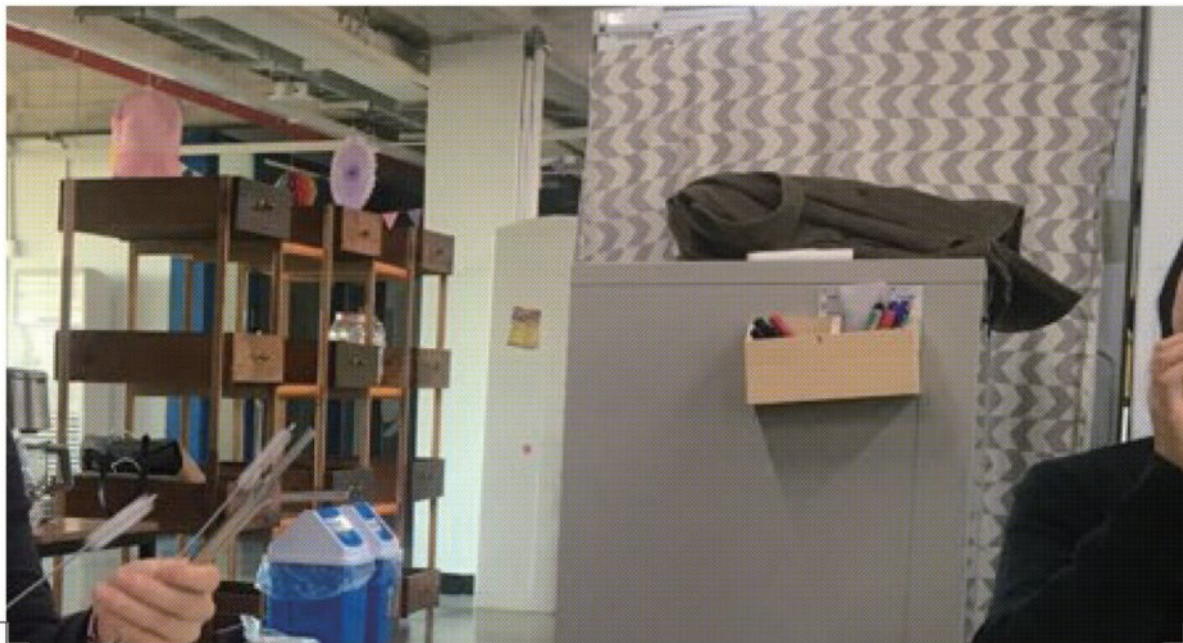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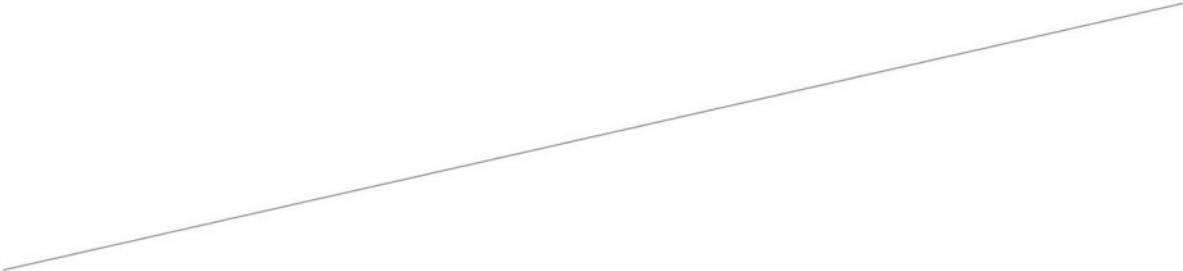
〈유진〉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고민하고 평소 생각하는 것을 프로젝트로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우는 게 많았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긴 흐름을 겪으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많은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기획자는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 계속 선택하는 것'이라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기획자는 결국 소통하는 자이다. 통해야지 기획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사리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게 느껴져 솔직히 답답할 때가 있었다. 각각 개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적극적인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도 있는데 적극적인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곳은 아니었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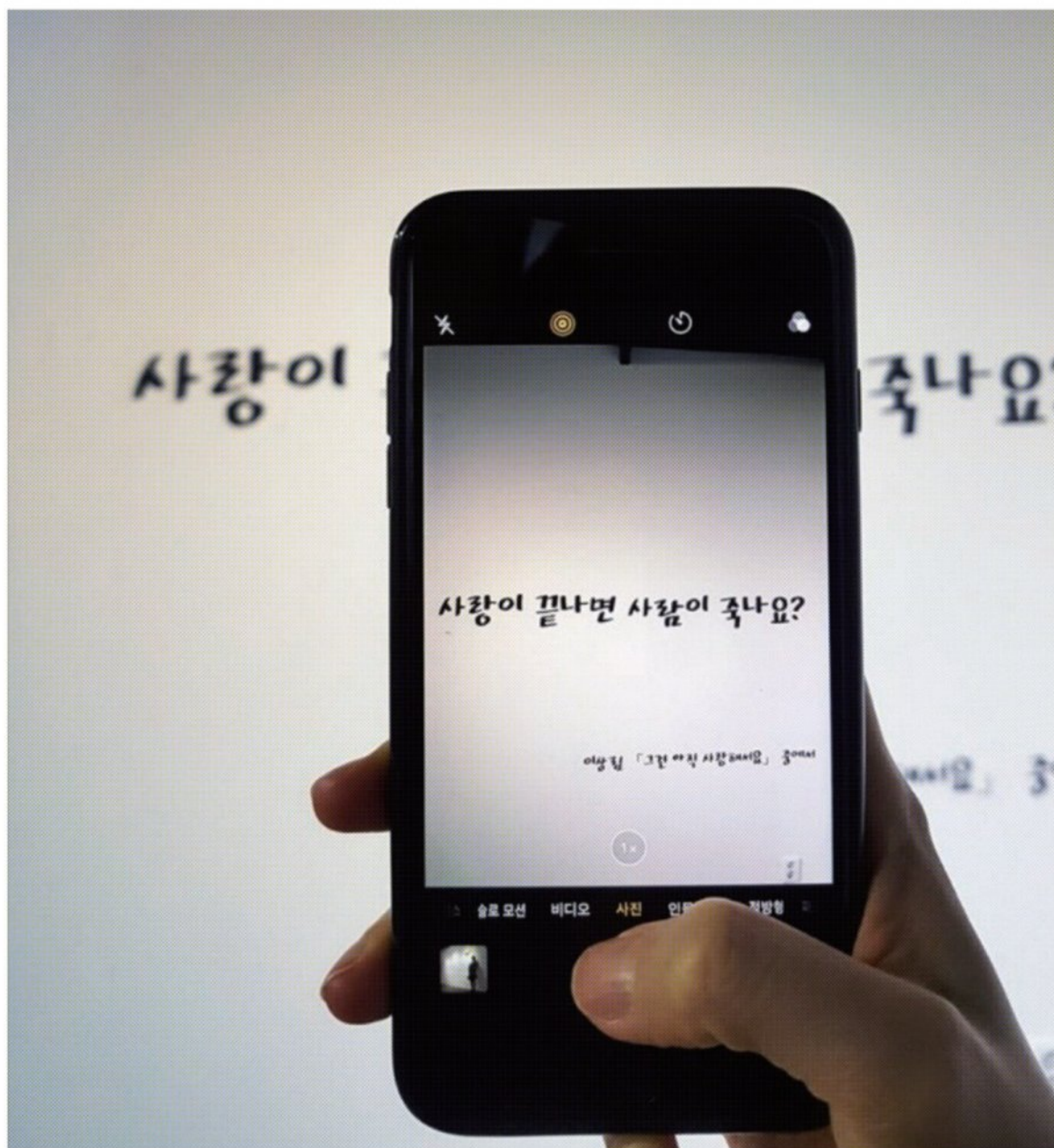
〈달의 조각들〉 글귀 전시

오멜라스 프로젝트(최서아, 홍준형, 마태광)



짧은 글귀에 익숙해져 책과 떨어진 사람들, 발상을 전환하면 '짧은 글귀로 책과 가까워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책을 읽는다.'라는 행위는 무엇일까? 직접 책을 보러 서점에 가고,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눈으로 읽는 일련의 과정이 비로소 책을 덮을 때에야 끝나는 긴 소통. 그리고 그 책 한 권이 나에게 남긴 가치가 어떤 꽃을 피울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책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책 한 권이 담고 있는 가치를 한 장의 사진처럼 명확하게 담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의 조각들이 모여 <달의 조각들> 글귀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순간을 간직하고자 찍는 사진처럼, 책에서 만난 '나를 닮은 글귀'를 한 장의 사진 속에 '독자'가 들어가 찍기 좋게, 담기 좋게 글귀 전시를 하였다. 하얀 벽면에 큼지막하게 걸린 문장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 또 다른 그림, 전시가 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또한 독자가 품은 글귀가 그들의 SNS에 또 다시 전시되고 꽃씨가 흩날리듯 퍼져 나가 어딘가에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정확



하게 파악해준 여러 관람자의 SNS, 카톡 프로필 사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로 다가왔다.

〈오멜라스 프로젝트〉는 어슬러 K. 르킨의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 따온 프로젝트 이름이다. Omelas를 거꾸로 읽으면 ‘살롬’으로 귀결되는데 오멜라스에는 모두의 안락함과 행복을 위해 희생당해야 하는 ‘그 아이’가 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글자와 문명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아이’들이 있다.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기도뿐이지만 이 책을 읽고 오래전부터 꿈꿔온 것을 실현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글이 필요한 곳에 책을 보내주는 것’



어쩌면 이 책을 읽는 순간 우리가 품은 씨앗은 이미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 책이 남긴 가치가 어떤 씨앗을 품을지, 꽃과 열매를 맺을지 그리고 또 다시 어딘가에 꽃씨가 흩날려 또 다른 가치를 전할지.

*오멜라스프로젝트의 <달의 조각들>은 이렇게 품은 가치를 실현하였다.

전시 주제: 달의 조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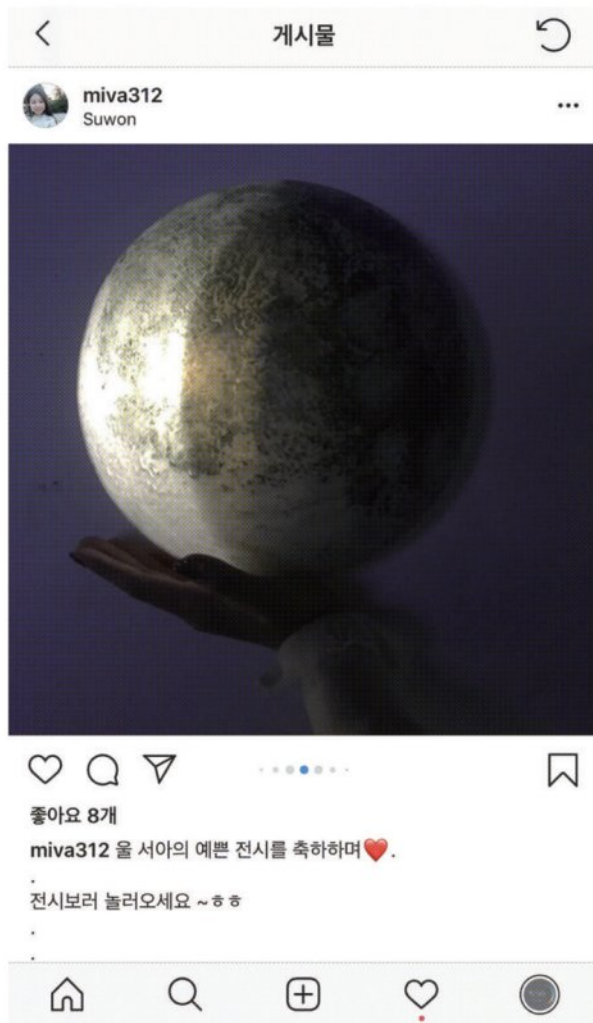
- 그리움 : 하현달 '달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 우울 : 상현달 '나는 우주먼지인가요'
- 행복 : 보름달 '세계의 끝으로 가는 여행'

소재목: November Moon

- 영상 : 마은영
- 음원 : 편인영
- 그림 : 서아 동생, 클레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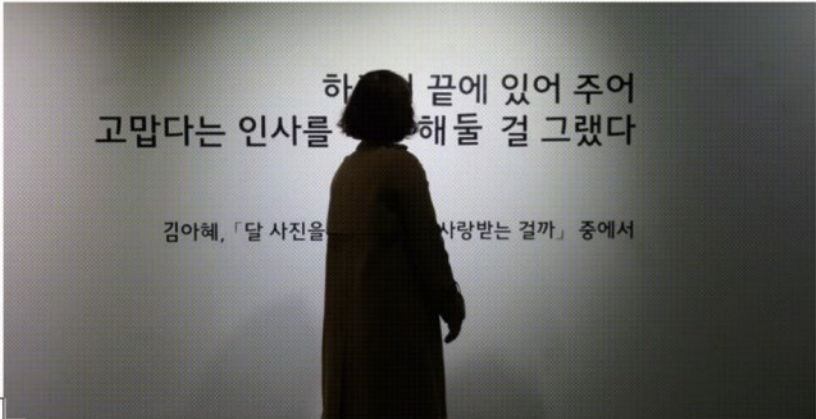
: 전시의 전체적인 컬러를 '11월의 차갑지만 어딘가 따뜻한 달'의
니앙스로 잡았다.

전시는 수원 <해움 미술관: 11월 2~7일>, 용인중앙시장 <나눔 카페: 11월 15~20일> 나누어 진행되었다. 총 관람객은 약 200명이며, 모든 전시 수익금은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도서 기부에 쓰여질 예정이다.



프로젝트 후기

서아 :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싶던 <텍스트 전시>를 실행 한다는 기쁨과, 부담감이 함께 마음 속에 공존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두 가지 속담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와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팀원 3명이 원하는 그림은 다 달랐다. 그림이 달랐기에 서로 양보하고, 포기하며 전시회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서로 가깝지 않은 곳에 살기도 하고, 각자 하는 일들이 있고, 각자 일어나는 상황들이 일 별로 달라 셋이 함께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면서, 태광 언니의 감각적인 색채와, 음향, 영상 준비로 전시회는 더 풍부해졌고, 준형오빠의 독립작가 전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실전에서 풍부한 전시를 마칠 수 있었다. 아마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심심했을지 모르는 전시.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고, 정산은 정말 어렵다……. 함께 도와 준, 나의 동생 봄이, 선배 새봄, 태광 언니의 동생 분들, 준형 오빠의 어머니, 여자친구 분, 모두모두 감사했습니다!



하루의 끝에 있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줄 걸 그랬다

김아혜, 「달 사진을 사랑받는 걸까」 중에서



준형 :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한 해를 보냈다.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기술적으로만 숙련돼서 잘하는 사람이 아닌 재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노닐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다 사리문화기획학교의 열린 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태광 : 오랜 꿈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제 3국에 책 보내주기’를 실현 할 수 있었던 건, 함께 걸음을 걷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었다. 해보면 어렵지 않은 것들이지만 익숙지 않을 때 두려움이란 단어가 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다. 그러나 서로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동료가 있기에 실수투성이라도 한걸음씩 내디더 드디어 목적지까지 도달하였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읽었을 때의 다짐, ‘누군가의 고통을 가만히 지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배웠다면 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 마음을 행하는 과정을 겪어냈다.

몽골에 그림책과 교재, 그리고 기부금을 전달해줄 수 있게 함께 해준 모든 손길에 두 손을 모아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덕분에 나는 희미해진 오랜 꿈을 분명한 현실로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서아의 오랜 꿈과 나의 오랜 꿈이 만나, 몽골에 수 없이 반짝이는 별들처럼 누군가에게 또 다른 꿈이 되기를…….



밤의마녀들

송아영



〈밤의 마녀들〉이란? 여성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연극과 글로 창작하여 할로윈 파티에서 공연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에 대한 성적 소문과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풍자하고 놀며 부조리한 성차별을 타파하는 창작 프로젝트.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지원 덕분에 2018년 11월 3일 총 3인의 참가자와 20여분의 관객여러분들과 함께 19금 스탠딩코미디와 비범한 DJing과 VJing이 함께하는 즐겁고 발랄한 광란의 〈밤의 마녀들〉 파티타임을 즐겼습니다. 현재는 워크숍 참가자들과 스태프진의 워크숍 결과물 이야기를 담은 문집 〈야간폭격 -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제작 중입니다.

H a l l o w e e n P a r t y
for the feminists from Hell

밤의마녀들과 함께하는 지옥페미 할로윈 파티



2018.11.3

PM 6:00~11:00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66

경기상상캠퍼스 라이브클럽(공작1967동)

문의 : 카카오톡 @frigia



밤의 마녀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할로윈 파티를 준비하면서 다사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여성에 대한 성적 소문을 재가공하여 공연으로 만들기'를 처음으로 시도해 본 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서 지속 가능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사리를 만났고, 좋은 멘토 선생님들과 정겨운 다사리 친구, 동료들 덕분에 고민을 나누고 작업을 좀 더 탄탄하게 기획하여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것저것 홍보를 할 만큼 하고 파티를 다 끝낸 다음에 느낀 것은 '아, 나는 역시 매니악한 쪽에 재능이 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공연이라면 몇 번씩 찾아와 주시는 저의 팬 여러분들과 즐겁게 술을 드시고 이야기 나누고 가셨던 파티장의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삶의 보람을 느끼며 무병장수의 꿈을 꾸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워크숍 시간도 너무나 풍성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프로젝트에 흔쾌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다사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이자 미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정치란 보여질 수 없었던 것을 보이게 하고, 말할 수 없었던 자가 언어를 획득하게 하며 들릴 수 없었던 소리, 즉 소음으로만 취급되었던 이들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갈등의 과정’이라 말했습니다. <밤의 마녀들>은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그것을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여자의 몸을 갖고 열정적으로 사회적 발언을 하고 예술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인 헛소문을 들어야 했던 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에 성차별의 부조리함을 겪는 모든 여성들이 저마다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서사를 말하고 재구성하여 여성들의 언어로 차별주의자들의 언어를 뒤집을 날이 올 때까지, 저와 <밤의 마녀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 나가며 더 많은 분들이 웃음으로 카니발을 즐길 수 있도록 발전된 기획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사운드 of 상상캠퍼스

지행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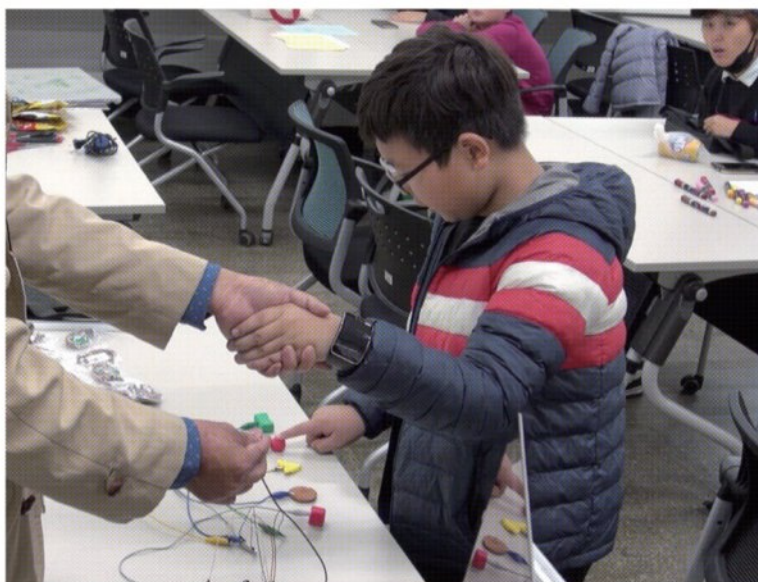
〈소리 숨바꼭질〉

소리 숨바꼭질은 참여자들이 리듬을 느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공유하고, 일상의 공간과 소리를 탐색하며 재발견하는 소리워크숍입니다. 별이 좋은 가을 날 상상캠퍼스 숲속에서 소리를 찾아 떠납니다. 보물찾기 하듯 소리를 내어줄 물건을 찾고 진동을 만들어 줄 바람을 찾습니다. 탐색과정에서 발견한 소리와 사물을 메이키메이키(서로 인식하여 연결시키는 마이크로 보드중 하나)와 결합해 보고 함께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공유해보고 상상이 현실로 변환되는 과정을 체험해봅니다. 나의 주변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찾은 소리 가치의 중요성을 함께 나눕니다.

*대상: 가족단위 참가자4팀 (총8명)

*일시: 2018.11.10 AM10-12

*장소: 상상캠퍼스내 생활1980 참살이룸1



소리 숨바꼭질 후기

보다 참여 인원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던 소리 숨바꼭질, 그런데다가 당일 두 팀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힘도 빠졌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해준 친구들,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미세먼지 극심했던 날이라 바깥 활동이 살짝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엄마랑 숲을 거닐며 탐색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만연한 가을 풍경과 함께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팀 작업이라 그런지 순조로이 잘 진행되었으며 적극적인 지 않던 친구들도 여러 가지 재료로 그리고 만들면서 점점 집중하며 진지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두어 팀만 더 있었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소소히 오붓하게 진행되어 좋았습니다. 강의실이 울려 강사님 목소리 전달이 좋지 않아 당혹감을 느꼈고, 기획자인 나만 예민하게 받아 들였지만 사전 점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마치고 저녁 학부모 피드백에서 아이가 집에서 소리를 찾고 있다고 감사함을 전하는데 안도감과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흙피리 플래시〉 몹

* 일시: 2018.11.10 PM2

* 장소: 생활1980로비/ 생생1990로비/ 사색의 공간

흙피리라고 불리는 오카리나가 상상캠퍼스라는 숲 공간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실내공간과 같은 답답한 장소가 아닌 가장 자연스러운 울림을 내어줄 수 있는 숲.

지극히 자연 소재만으로 만들어지는 울림을 상상합니다.

예기치 않은 플래시몹으로 휴일 상상캠퍼스를 찾은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 소소한 재미를 전달하며 모두가 일상의 무료함을 날리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흑피리 플래시 몹〉 후기

숲에서의 플래시 몹을 무척이나 기대했으나 바깥 활동을 자제한 날씨여서 갑작스럽게 실내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야외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연주를 시작했는데 오래된 건물 특유의 높은 층고로 울림이 좋아 연주하는 이들, 듣는 이들 모두가 편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낯선 행위가 주는 익사이팅함에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관객의 호응에 힘입어 두어 곳 더 가서 연주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선물 같은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연주하시는 분들도 플래시 몹이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도전이 주는 성취감, 새로움이 주는 기쁨, 관객과의 소통 등 즐거운 요소가 많다 하시며 내년에도 하자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카리나가 내는 합주 사운드에 놀랐다는 반응을 이래저래 전달해 들었습니다.

숲에서의 연주가 좀 아쉬웠지만 이번을 계기로 열려있는 상상캠퍼스의 플래시 몹을 언제든지 상상합니다.



동그라미 축제

이연우



‘사회 문제’

누군가는 어렵게, 누군가는 골치 아프게, 누군가는 중요하게. 모두가 다른 무게로 바라보는 이 단어는 하나의 공통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무거운 주제라는 것. 이 단어가 등장하면 우선 그 대화나 글은 재미없게 느껴지거나, 화를 부르거나, 머리를 아프게 한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대화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은 늘 있고, 거론한 사람은 ‘진지충’으로 낙인찍히곤 한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려면 행동은 필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곧 변화이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중요하다.

동그라미 축제는 언뜻 들으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인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문화기획의 역할 중 하나라는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골치 아픈’ 세상 이야기들을 신선하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생각에 ‘축제’라는 형식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동그라미일까?





동그라미는 생명과 가장 닮아있는 모양이며,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 지구처럼 큰 세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동그라미가 나를, 서로를, 다른 생명을 배려하며, 세상이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을 대변하는 가장 적절한 모양이라 생각했다.

동그라미 축제는 움니버스 형식이므로 다양한 기획자가 참여했다. 전체를 맡은 기획자를 중심으로 총 6개의 메인 프로그램을 8명의 기획자가 각각 기획했다.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들려줘 bar, 실패로 논다, 내 멋대로 뜯어, 빨간 림보: 선 넘어 산, 낮설 여행사, 이런 욕망한 것>이 있다. 이 기획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환경, 동물권, 사회적 고립화 등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다룬다. 표현 방법 또한 모두 달랐다. <전시, 워크숍, 참여 프로그램, 게임> 등으로 각 기획자의 개성을 담으면서, 대중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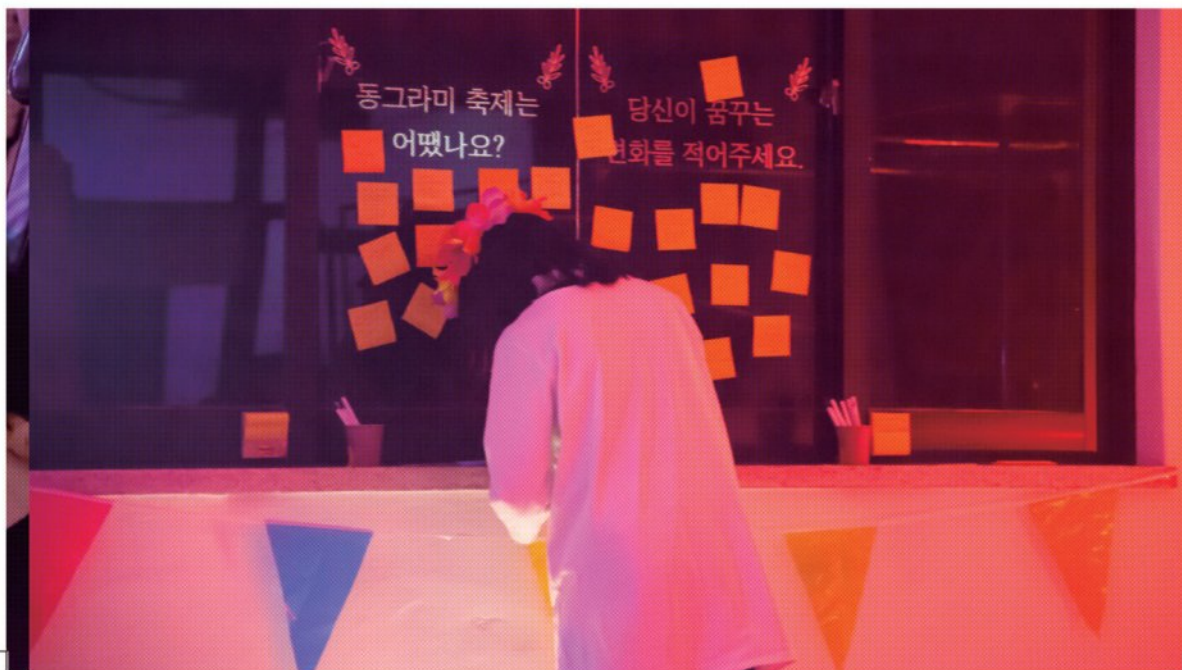
동그라미 축제(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전체 기획은 동그라미라는 개념과 이미지를 만들고, 관람객이 경험할 축제의 플로우, 인상, 이벤트 등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예를 들면, 축제장은 바깥세상과는 다른 곳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조명과 데코레이션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 동그라미 세계는, 젊고 키네틱 하지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고, 변화와 현실의 사이에 있다는 느낌이 신비롭게 그리고 은은하게 와닿았으면 했다. 동그라미 인사와 의식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 손을 반원 모양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과 이어, 같이 동그라미를 만들어 내는 행위는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그라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동그라미 의식 또한 더 이상 타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현 사회의 모습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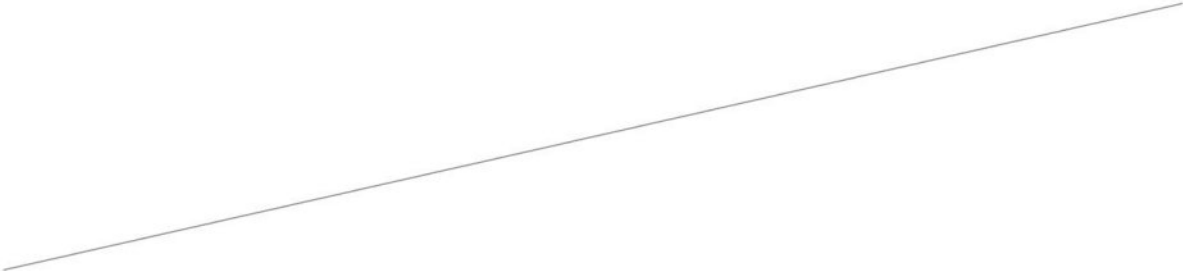
로부터 잠시 벗어나, 같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즐거운지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다. 그 외에도 <채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 물건을 재활용해 축제 굿즈로 만들어주는 부스, 지옥에서 올라온 종북 폐미 마녀 송아영의 타로 부스, 빈티지 마켓>까지 메인 기획들 외에 작은 부스들을 배치해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2018.11.10 토요일 오후 13시. 3개월의 회의와 멘토링, 고민, 스트레스, 노-오력을 지나 동그라미 축제가 막을 열었다. 지인 파티가 될 줄 알았던 축제장엔 약 150명의 사람들이 와줬고, 모든 부스는 (약간의 오버를 더해) 딱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람들은 신선해 했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들이 나름 전달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만든 사람이 먼저 즐겁고, 오는 사람도 즐거워하는' 축제로 막을 내렸다.



프로젝트를 돌아보면, 즐거웠던 순간의 비중이 훨씬 큰 것 같다. 상상했던 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은 재밌었고, 더 잘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씨앗을 던져주었다. 앞으로 이 씨앗을 잘 키워나가면 어느새 진짜 문화기획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 과정도 기대된다. 많은 인원과 함께 일하는 것,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두려워하던 부분 중 하나였다.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면 우여곡절이 있을게 분명했다. 하지만 도전했고, 배웠고, 두려움을 어느 정도 떨칠 수 있게 되었다.





들려줘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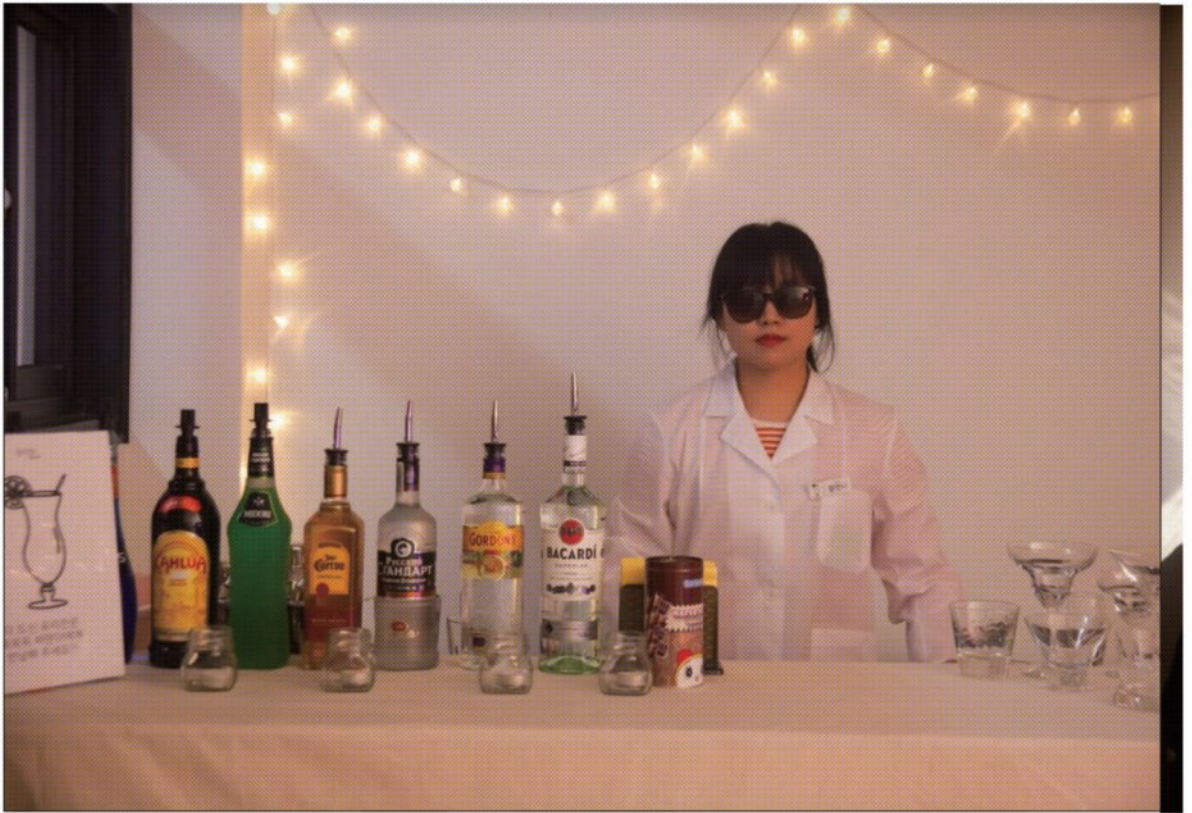
이지선



프로젝트 소개 및 결과

‘들려줘bar’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맞는 칵테일을 처방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들려줘bar’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전에 상담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당시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졌던 저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들어주기의 힘’을 믿게 됐고, 제가 믿고 있는 ‘들어주기의 힘’을 다사리 프로젝트를 통해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우선, 동그라미 축제가 우려와 달리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들려줘bar’도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생각해요. 여섯 시간의 축제 시간동안 화장실을 2번 가는 일 외엔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러 오셨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서른 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칵테일을 처방해 드렸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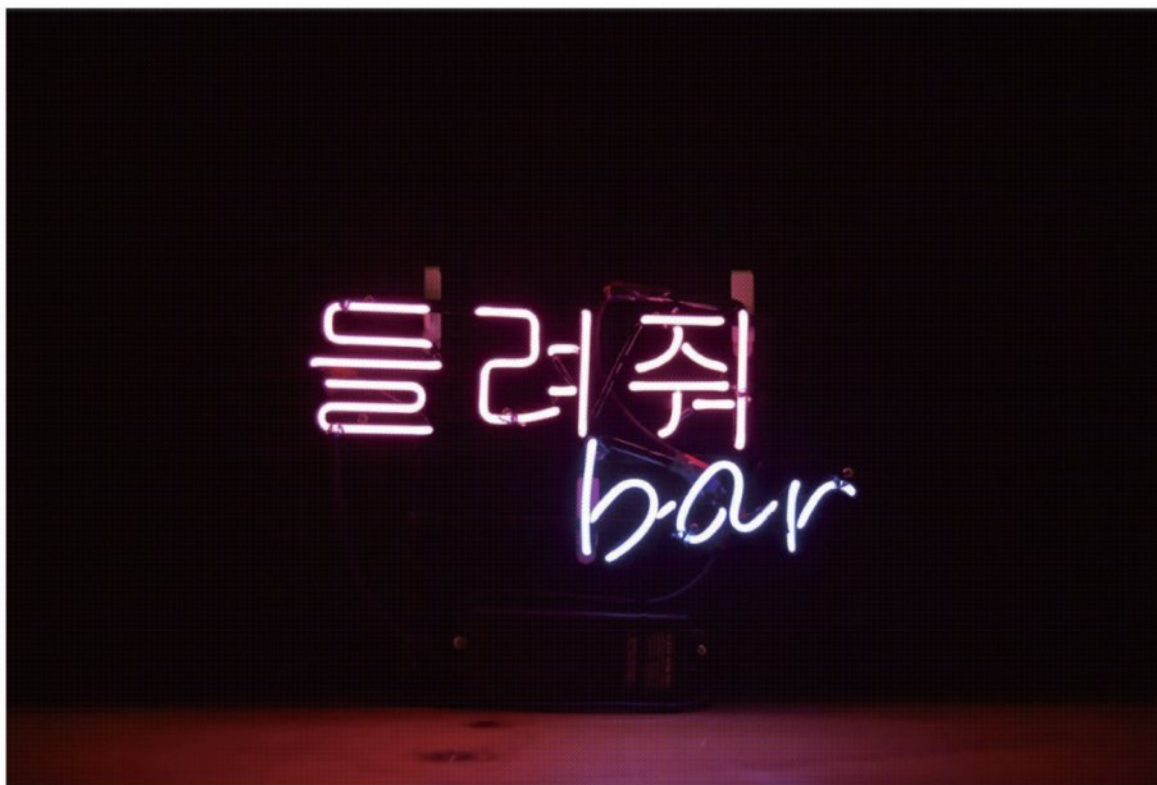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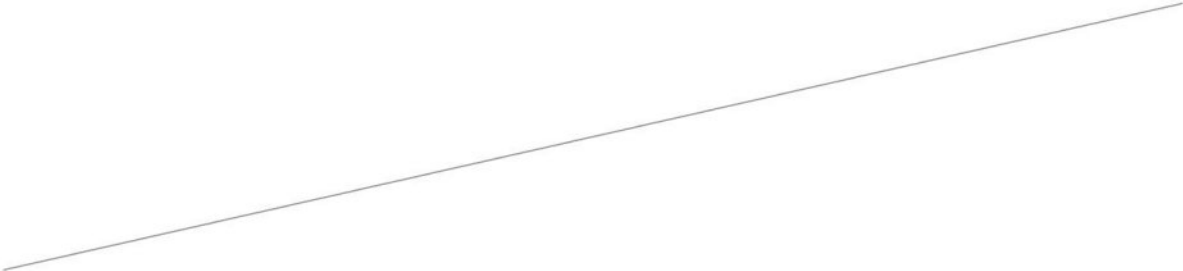


프로젝트 후기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점이 많을 거라 짐작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울림을 가져온 프로젝트였어요. 저와는 다른 환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로 하여금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느끼게 해준 분도 계셨고 또는 듣는 순간 저까지 울컥하게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잣대로만 남을 판단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는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프로젝트 자체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프로젝트다 보니 저도 선불리 무언가를 조언하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만가만히 들어드리면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스스로 거치게 됐고 그 과정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내 멋대로 뜯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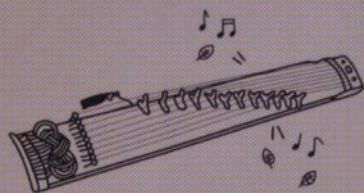
조정현



동그라미축제에서 [내 멋대로 뜯어] 라는 부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제목에서 알다시피 내 맘대로 가야금을 뜯어보고, 내 멋대로 만지면서 나만의 소리를 통해 잠시나마 일상에서 지친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다. 많은 악기들 중에서도 가야금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가야금은 어떤 도구를 통한 소리가 아닌 손가락으로 직접 내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자의 성격, 기분 등의 상태가 숨김없이 드러나는 솔직한 악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매력적인 가야금소리를 무대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악기를 통해 나만의 소리, 색깔을 찾는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도시 소리에 지친 귀, 가야금으로 정화하세요

내 멋대로 뜯어



〈체험 및 공연〉



부스를 꾸미고 축제가 시작되었을 때는 설레는 마음과 신나는 마음이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되었다.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걱정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해졌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재밌게 잘 놀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면서 정신이 없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당황한 마음이 컸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들어오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한 나는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눈치도 보였다. 부스 운영 중에 게릴라공연처럼 가끔은 악기연주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부스를 재밌게 즐겨주셨다는 증거이니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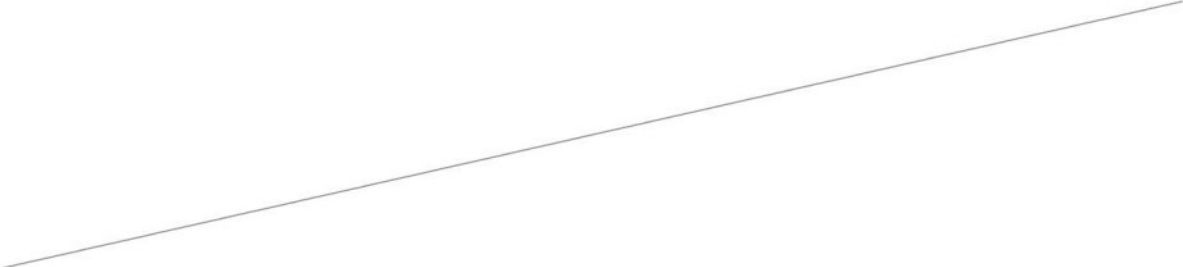


나에게는 수 년 동안 친해지고 싸우기도 하며 애증의 관계가 된 가야금이었는데, 악기를 만져보면서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호기심을 갖는 참여자분들을 겪어보니 오히려 내가 기운을 얻어가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악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TV 속에서만 보던 물건을 실제로 만져보니 너무 좋다며 집중해서 한 줄, 한 줄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다. 손길 닿는 대로 소리가 나는 이 물건이 재밌었는지 엄마가 가자고해도 버티고 앉아 있는 어린 친구들도 많았다. 어떤 소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지 제대로 완성된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짧은 시간동안 매우 집중했다. 정해진 주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의 방식대로 소리 내는 법을 그들은 찾아갔다. 물론 부스를 찾아와 주신 분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하는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보여준 다양한 반응들은 기획자에게 많은 공부가 된 시간이었다.





[내 멋대로 뜯어]는 처음부터 동그라미축제와 함께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각자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획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것을 묶어서 동그라미 축제가 탄생하였다. 감사하게도 나도 그 안에 함께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아! 혼자 보다 훨씬 재밌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였지만 함께 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던 것 같다. 축제 안에서도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어느 정도 축제의 색깔에 맞춰야했기 때문에 수정하고 의견을 조정해가는 부분이 어려웠다. 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했다. 특히 회사 입사 시기와 다사리의 개강이 겹쳤기 때문에 동시에 적응해가면서 양쪽 모두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건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한계에 자책도 많이 했다. 악기전공을 하다가 문화기획에 관심을 갖게 된 나는 기획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던 것 같다. 그래도 과정과 결과 모두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였다. 마치고 나니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는 다 잊혔고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들만 남아있다.



이런, 욕망한 것

강은정



설치전시 〈욕망 덩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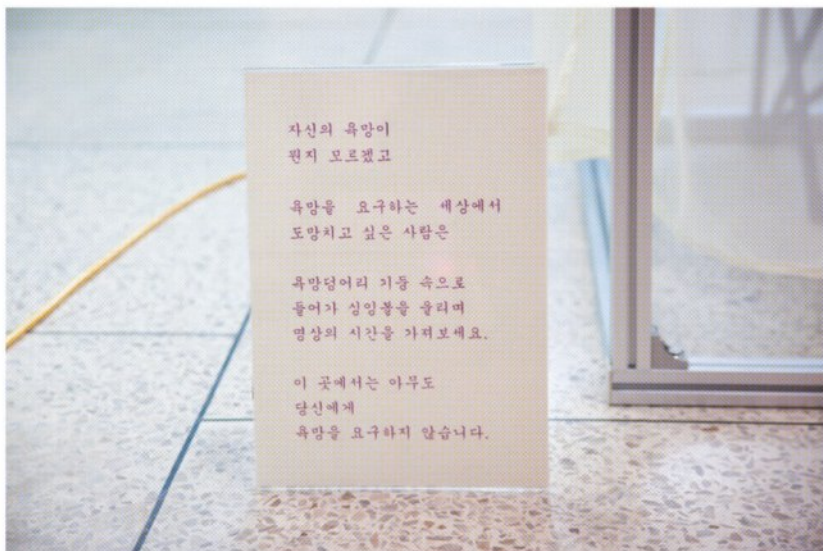
2018. 11. 9 생생1990 2층. 복도

“이런 욕망한 것” 나의 욕망은 무엇일까. 그 ‘어떤 욕망’이 없다. 나는 왜 욕망이 없지. 욕망이 없다는 자체로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는 것일까. 나의 욕망을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마저 생기려 한다. 개인의 욕망까지도 요구하는 사회에서 숨기 위해 기둥 속으로 들어가 몸을 구겨서 쪼그리고 앉아 있고 싶다. 유일한 욕망이 있다면 무엇이랴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욕망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욕망을 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욕망이 없다는 무력감을 안고 욕망이 없다는 욕망을 표출하면 어떤 시선을 받게 될까.

그리하여, 욕망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 '욕망 덩어리'란 이름의 기둥 속에 들어가 구겨져서 앉아있는 퍼포먼스를 기획해 보려한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욕망이 없다는 표현의 욕망' 기둥 속에 앉아서 바라본다.

이것은 동그라미 축제 안의 상상1990, 2층 공간의 어느 지점에 '욕망덩어리'라는 기둥을 설치하면서 시작한다. 자발적으로 관객이 기둥 안에 들어가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앉아 있다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간다.

안에는 '싱잉볼'(singing bowl)이 있어 종소리가 울리며 자신의 욕망에 대해 인식해본다. 그 안에서 관객과 설치자는 욕망덩어리라는 공간에 앉아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욕망을 요구받는 사회에서 어떠한 욕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 자신의 욕망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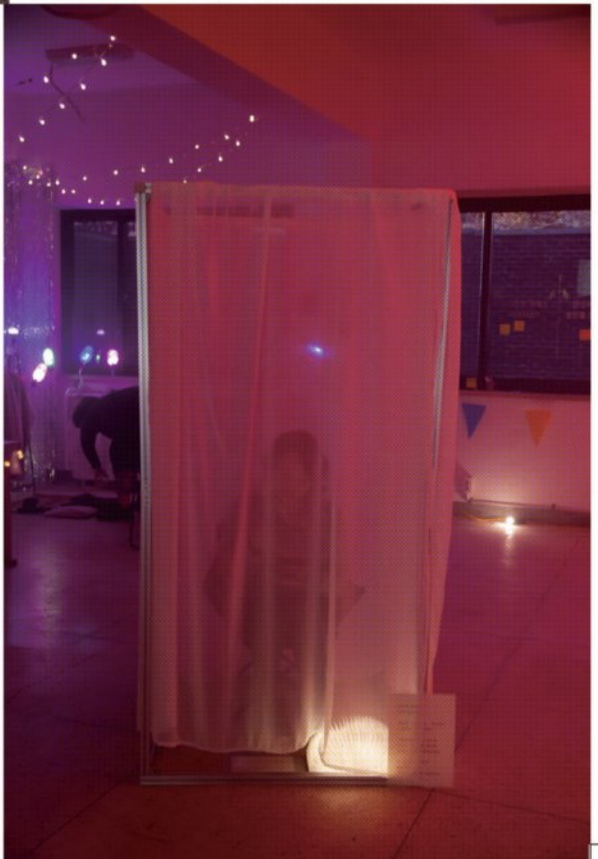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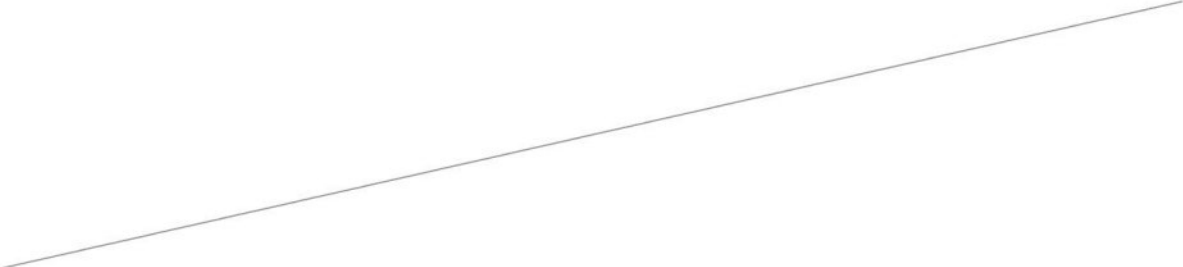
자신의 욕망이
뭔지 모르겠고

욕망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은

욕망덩어리 기둥 속으로
들어가 싱잉볼을 울리며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욕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패로 논다〉,
전시 〈실패한 전시:그래도〉

조혜란

- 과정

〈실패로 논다〉 프로젝트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실패 만들기’ 워크샵이다. 〈그림, 글씨, 문양, 주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직접 디자인해 실패를 만들고 실패담을 공유한다. 부연하자면 실패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인 ‘일을 그르침, 실을 감는 도구’를 모두 이용해 실패를 만들며 실패담으로 사람들과 소통한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혹은 당장 오늘 했던 실패담을 적으며 ‘실패’에 대해 생각해보고 무거워진 마음을 가볍게 전환해 실패를 만든다. 실패 모양도, 색도, 꾸미는 비즈도 마음대로 붙여 가며 나만의 실패를 만든다. 또 그 실패 가운데에는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주문, 응원 메시지, 보고 싶은 그림 등, 힘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적어 실을 감으며 숨긴다. 나중에 또 실패하는 날, 실을 풀어 메시지를 보고 다시 실을 감으며 도전할 마음을 가진다.

〈실패로 논다〉 프로젝트 후 〈실패한 전시: 그래도〉라는 한 뼉 전시를 열어 실패에 대해 새롭게 정의한다. 프로젝트 때 수집한 사람들의 실패를 토대로 그림 4점과 직접 적은 실패담을 전시한다. 가장 많이 실패한 것 중 하나인 〈인간관계, 나, 용기, 핑계〉를 주제로 미리 그린 그림을 실과 실을 엮어 함께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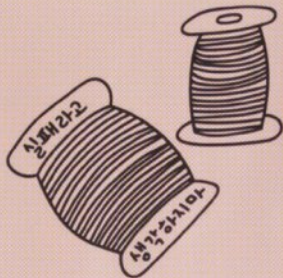
- 결과

동그라미 축제에 함께하며 프로젝트 참여자 수를 30여명으로 예측했다. 다른 기획 부스들과 묶이면서 참여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약 30~50명분의 실패 모양 나무와 다른 모양 나무로 약 40개 정도 준비했다. 두 개의 모양의 나무를 겹칠 것을 예상해 준비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참여 인원 때문에 나무 조각을 나눠 선택하게 했고 이를 모두 소진하게 됐다. 그 뒤로 오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주 재료가 모두 소진돼 참여하지 못했다. 처음 30명을 예상했지만 약 100명 정도가 프로젝트 <실패로 논다>에 참여했다.



성공만 좋아하는 사회는 아웁! 실패의 가치를 알자

실패로 논다



〈워크숍〉



- 후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뒤를 이어 진행되는 전시를 채우기 위해서는 타인의 길고 많은 실패담이 필요했다. 절차가 처음 기획과 많이 바뀌어 다소 심심한 기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실행할 때 ‘어떻게 개인사를 끌어내야 하는지’, ‘내 기획 의도를 이해시켜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러나 준비를 하면서 기획은 간단해지고 내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더 맞춰졌다. 당일까지도 도와주는 스태프와 대화하다가 최종적으로 순서를 바꿔 실패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고 그 뒤로 언어유희를 설명한 후 ‘실패’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해와 집중이 높아지고 동선이 매끄러워졌다.

또한 동그라미축제로 묶여지면서 프로젝트의 방향도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처음 동그라미축제로 기획을 묶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축제의 의도와 내 기획이 잘 맞는지 생각해봤다. 겉으로만 맞는 맥락이 아닌 진정으로 같은 의도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쉽게 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프로젝트가 다른 기획들과 만나면서 색이 명확해진 것 같고, 걱정과는 다르게 순조롭게 흘러간 것 같다.

그 후 전시를 기획하는 데 우려했던 것보다 마음이 편했다. ‘실패한 전시’라는 이름과 축제에서 얻은 많은 실패담 덕분에 편한 마음으로 타인의 실패를 정의해보았다. 지극히 사적이고 내 식대로 꾸민 전시여서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았다. 그래도 깊게 고민하는 시간, 실패를 정리하는 시간, 가볍게 변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치명캠프

이가은, 이근준, 방민아



치명캠프를 소개해주세요.

독립투사도 독립운동을 하며 연애를 했다는데,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면 성숙한 사랑을 할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될수록 오히려 술과 침대로 가기 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로 가기 전, 그 시간을 잡아보고 싶었어요. 누구는 가로등 밑 계단에 마주 앉아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자동차 안에 나란히 앉아있을 수도 있겠는. 어디 있든 제일 본능적이고 감각적일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말보다는 몸의 언어를 깨우며 노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엉뚱한 생각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상상에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처음 만난 사람과 누워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과 누워서 마주보고 있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심장박동수를 재어보면?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소리만 들으며 사람을 만나보면 어떨까? 목소리로 만난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게 될까? 그러면 뻔한 연애도 뻔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또 사람이 다 똑같지만, 그 사람을 내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해지니까 그럴 수 있게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참여하고 싶어서 생 각해낸 건데, 저는 참여를 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쉽네요.



치명캠프를 하면서, 어땠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던데.

일단 설득의 과정이 길었어요. 나의 고민이 청년의 고민인가 하는 지점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또 몸으로 노는 것이 일반사람들도 잘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논문도 읽고, 사례들도 찾아봤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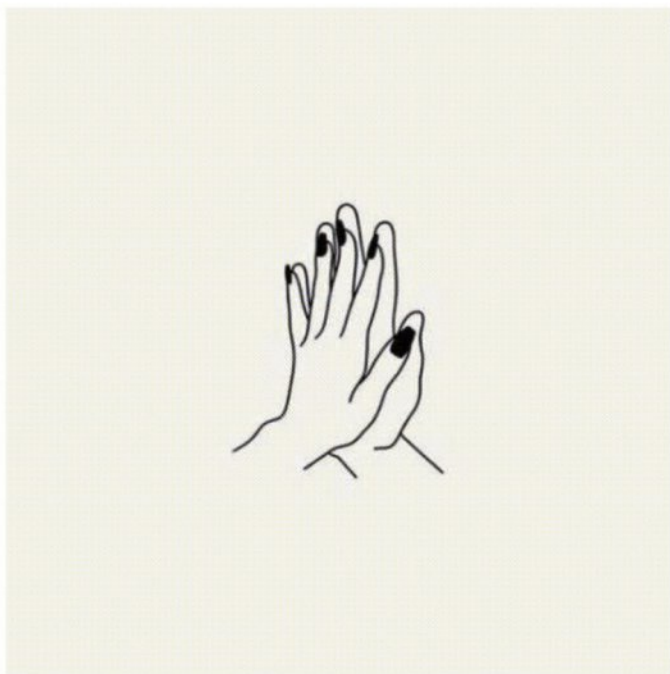
확히 어떤 지점을 원하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는 거 정도로만 멈출 수 있었거든요.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연구를 찾아보다 알게된 건데 이 소재에 가까운 지점이 호르몬이 아니라, ‘뇌과학’이더라고요. 그런데, ‘뇌과학’을 춤으로 다루는 분이 계셨어요. 뇌는 설명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 건데요. 이 관점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소울섹스라는 말이 있는데, 몸으로 느끼는 오르가즘만큼 영혼이 느끼고, 섞이는 게 더 황홀하고 고유한 관계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 지점들이 제가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힘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좋았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제 편이거든요. 저를 믿어주시고 바라봐주는 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어디가든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론은 우여곡절의 시간이 제게 필요했다는 것.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제게 굉장히 귀해졌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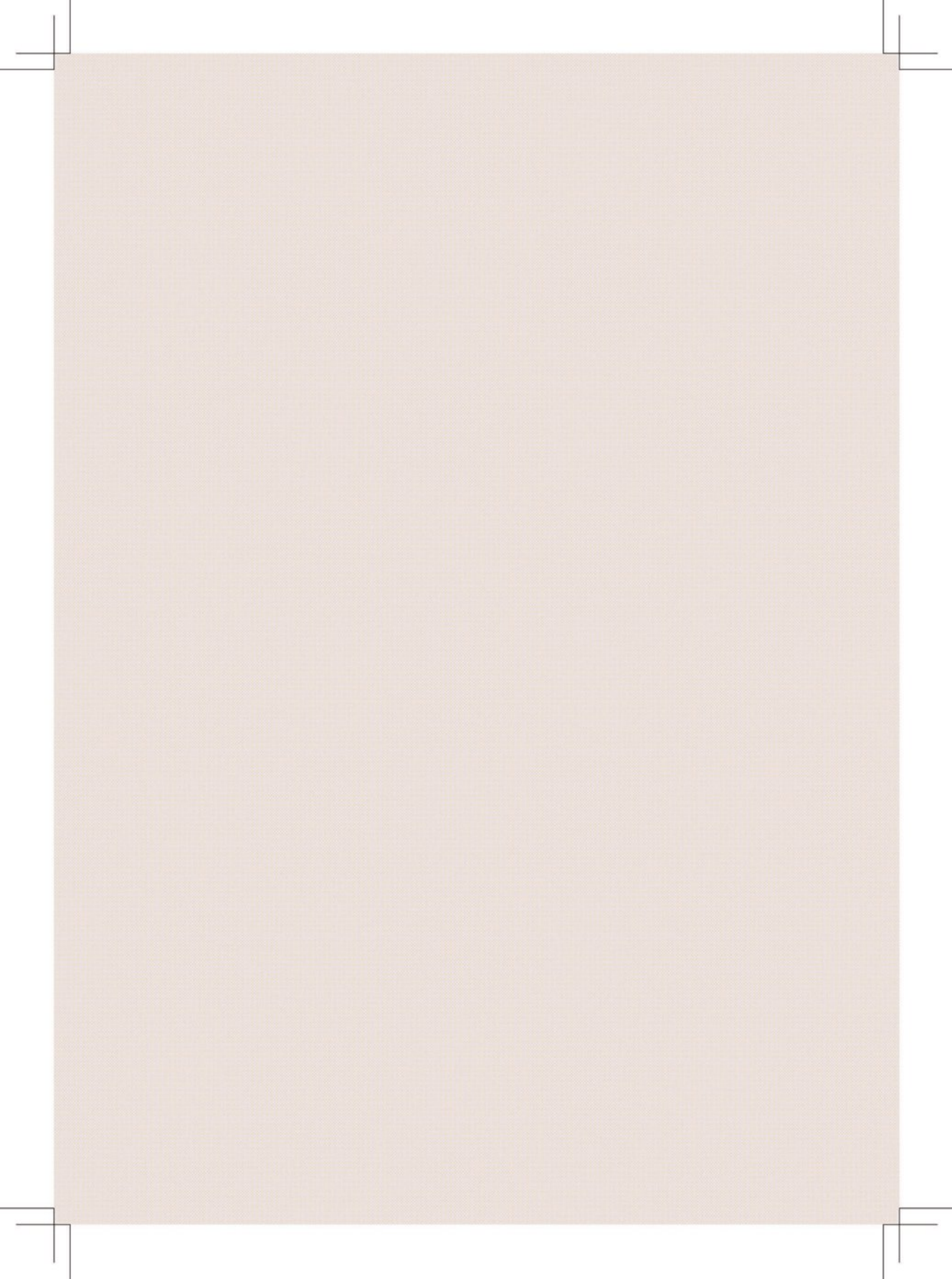


치명캠프를 또 하실건가요?

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가치들이 값지게 느껴졌어요. 또, 팀으로 함께 해준 친구들도 고생했지만, 막바지에 다사리5기 친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재지않고, 도와줬거든요. 그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면 어떡해야할지 고민하는 중인데요. 일단, 이걸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보려고요. 그래서 하얏트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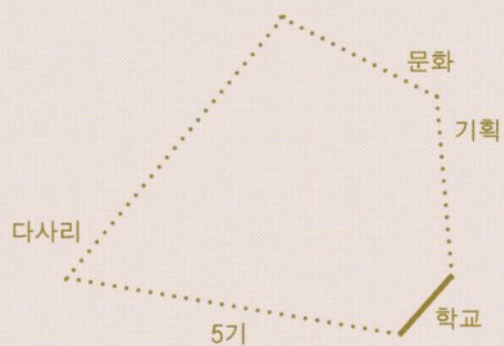


학

교

교복도 없고 급식도 없지만

교정이 있고 우정이 있는



20180523 남부 북부 OT







20180609 남부 북부 통합워크숍









강정석 : 글쓰기 수업

주성진 : 글쓰기 수업





임재춘 : 이론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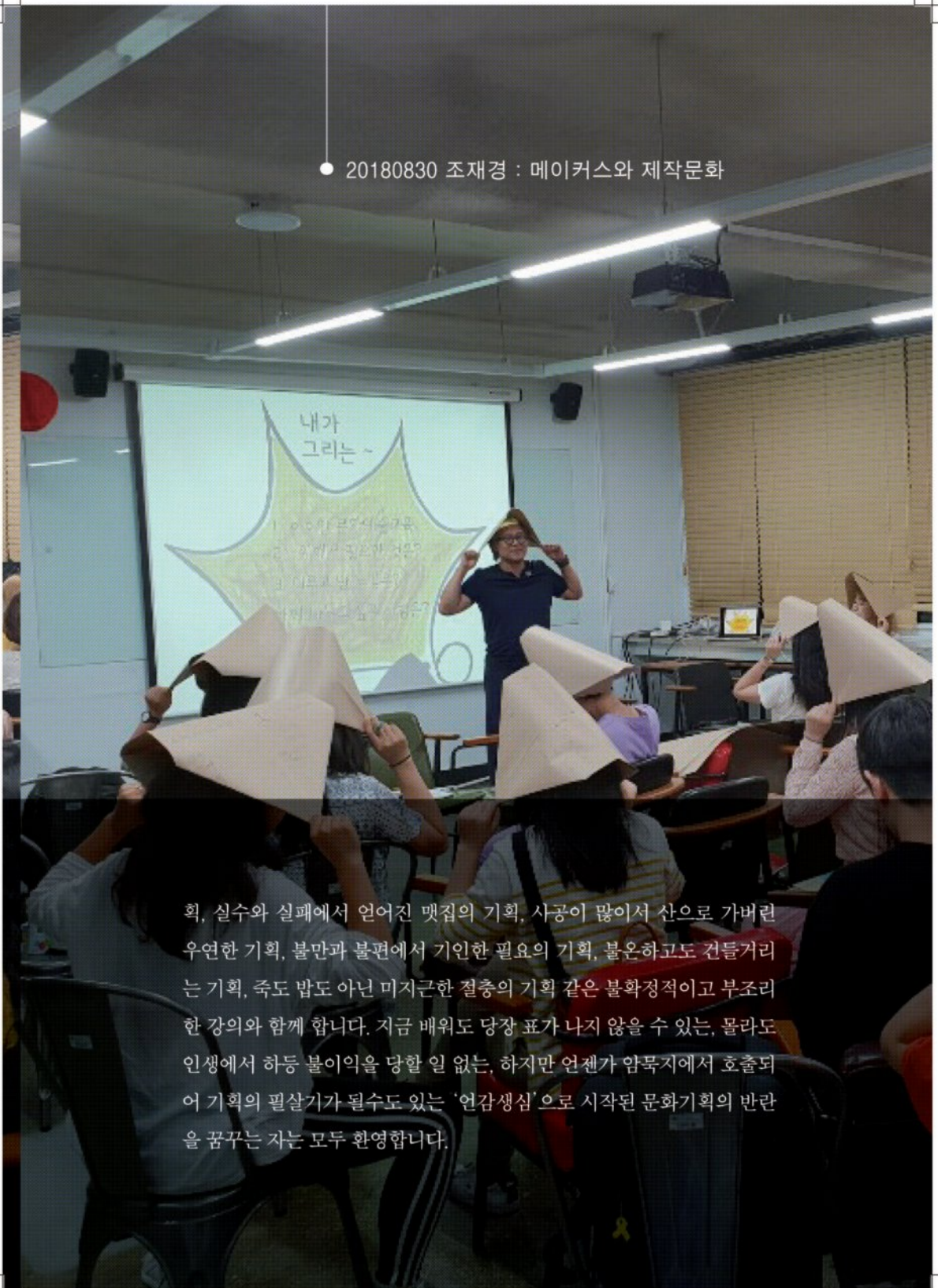
이재관 : 이론강의

● 20180809 김종길 : 광야는 넓고 고수는 많다

2018 다사리 야학 '언감생심' 焉敢生心 문화기획

'언감생심' 焉敢生心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랴?') 문화기획은 다사리 문화기획학교가 핫한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 준비한 '문화기획자를 위한 야학'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먹고사는 일 때문에, 학업 때문에, 비싼 등록금 때문에 문화기획의 꿈을 마음속에 접어 놓았던 분들과 '어찌 감히 먹은 문화기획의 마음'을 들킨자들을 위한 강의와 워크숍으로 진행됩니다. '언감생심'의 강의를 '언감생심'으로 문화기획을 시작했지만 찬란한 문화기획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강의에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과 조우함으로써 시작된 각오와 오기의 기

● 20180830 조재경 : 메이커스와 제작문화



획, 실수와 실패에서 얻어진 맷집의 기획,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버린 우연한 기획, 불만과 불편에서 기인한 필요의 기획, 불온하고도 건들거리는 기획, 죽도 밥도 아닌 미지근한 절충의 기획 같은 불확정적이고 부조리한 강의와 함께 합니다. 지금 배워도 당장 표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몰라도 인생에서 하등 불이익을 당할 일 없는, 하지만 언젠가 암묵지에서 호출되어 기획의 필살기가 될수도 있는 '언감생심'으로 시작된 문화기획의 반란을 꿈꾸는 자는 모두 환영합니다.

● 20180906 박도빈 : 편견으로부터 읽기



● 20180913 민운기 : 언감생김 도시재생



● 20180920 박찬국 : 몸빵의 문화기획



- 20181004 김상윤 : 알미운 문화지원정책,
영리한 문화기획자



- 20181011 백기영 : 풀지 않고 기획자의 배짱을 확장하는 방법



● 20181025 김남수 : 접신의 문화기획, 주름 속의 신화와 문화





• 20181101 고영직 : 엮는기술
(비만의 레퍼런스와 지식의 다이어트)



‘마트는 넓고 라면은 많다!’ 텔레파시 게임 워크샵

1.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에도 의미와 목적을 둘 수 있구나.’ 생각보다 문화예술기획은……. 어쩔…….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일이 아닐까? 라는…….

2. 서로의 라면을 섞어, 새로운 라면 요리가 탄생하듯~ 우리 각자의 프로젝트도 함께 섞다보면 멋진 새 작품이 탄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탐색전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라는…….

3. 라면을 중복되지 않게 준비하기 위해, 서로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배려심’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하는

4. 생전 먹어보지 못한 기발한 라면요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4가지 큰 기대감을 갖고 시작되었던 프로젝트였음!!



과정과 결과: 2018년 8월 9일 오후 5시.

1990 경기상상캠프 다이닝실

진행자: 한혜성

참여자: 김가영, 이가은, 송아영, 최서아, 마태광

1. 서로 갖고온 주재료(라면)과 부재료에 대해서 '왜?' 하필 그 재료를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

♥ 혜성: 공화춘 짬뽕 + 콩나물

이유: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라면 중에서 제일 매운 라면을 리서치했습. 틈새라면과 공화춘 짬뽕으로 대상이 좁혀졌으나 틈새라면이 많이 대중화 된 것에 비해 공화춘 라면은 아직 많이 접해보지 못했으며 실로 더 맵다고 함. 대형 마트를 비롯해 몇 군데를 돌아보던 중 겨우~GS 편의점서 득템하였습. 그러나, 실로, 본인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음! 하지만, 오늘 오는 누군가의 라면과

함께 매칭 된다면, 매운맛이 맛있게 매운 음식으로 변모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 라면을 준비해 보았음. 콩나물은 매운맛을 중화하는데 도움이 될듯하여 매칭해 보았음. 누구와 매칭이 될지 기대가 컸음!!

♥ 가은 : 너구리 순한맛 + 양파

이유 : 너구리라면은 많이 보았으나, 순한맛은 많이 보지 못했었던 거 같아 준비했음. 또한, 너구리 안에 있는 다시마가 다른 라면과 만났을 때 이렇게 좋은 어울림현상이 나올 것이란 기대에 준비했음. 또한, 라면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 부재료로 양파를 준비했음.

* 실로, 요리할 땐 대과까지 대량 살포하여 라면의 풍미를 향상시켰음.

♥ 가영 : 신라면 + 표고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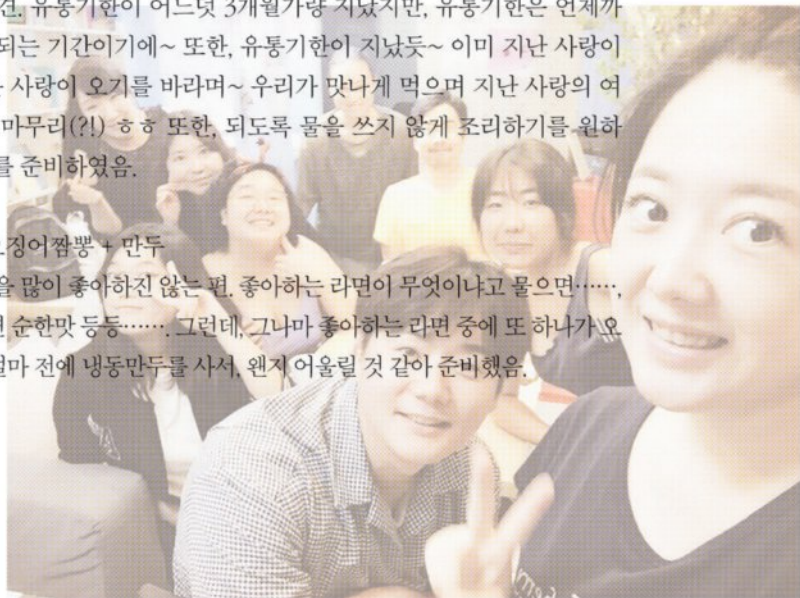
이유 : 겹치지 않게 준비하기로 한 미션에, 아무래도 젤 단순한 라면이 오히려 준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장 많이들 먹는 신라면으로 준비했음. 또한, 신라면 안에 표고버섯이 있긴 하나, 표고버섯이 더 많으면 신라면의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거 같아 표고버섯을 부재료로 준비했음

♥ 아영 : 불닭볶음면 마라맛 + 채소육수

이유 : 지난 사랑의 여운. 지난 사랑과 함께 나눴던 라면. 한동안 잊고 지내다 어느덧 발견, 유통기한이 어느덧 3개월가량 지났지만,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나 유통이 되는 기간이기에~ 또한, 유통기한이 지났듯~ 이미 지난 사랑이기에~ 새로운 사랑이 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맛나게 먹으며 지난 사랑의 여운을..... 잘 마무리(!) ㅎㅎ 또한, 되도록 물을 쓰지 않게 조리하기를 원하여, 채소육수를 준비하였음.

♥ 서아 : 오징어짬뽕 + 만두

이유 : 라면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 편. 좋아하는 라면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스낵면, 진라면 순한맛 등등..... 그런데, 그나마 좋아하는 라면 중에 또 하나가 오징어짬뽕!?! 얼마 전에 냉동만두를 사서, 웬지 어울릴 것 같아 준비했음.



이때까지 모~두의 라면이 신기하게 겹치지 않았음!! 겹쳐야만, 뒷정리를 겹친 사람(텔레파시가 통한 사람들)끼리 하기로 함, '안 겹치게 서로를 잘 ~배려하였나보다!!' 라고 결론!

2. 모두 갖고 온 라면을 가운데로 모았음. "몇 개의 요리로 만들 수 있을까?" 서로 생각해 보았음.

여러 상황 상~ '국물이 있는 라면' 과 '국물이 없는 라면'으로 [2가지]만 만들기로 결정되었음.

♥ 아영팀장 : 불닭볶음마라맛+포하노이+채소육수+콩나물+양파+ 만두 로 [볶음면과 쌀국수 국물] 창작! 예정.

♥ 가영&은팀장 : 공화춘+신라면+너구리순한맛+ 징어짬뽕+콩나물+양파+만두+표고버섯+대파 [몽땅때려넣어섞어라면] 창작! 예정.

그때, 태광 참여자가 주재료로 신라면과 부재료로 신라면을 준비해서 도착했음!!

여기서, 오늘 뒷정리 담당이 자연스럽게 결정 되면서 프로젝트는 더 할 기차고 재밌어졌음.

3. 아영, 가영, 가은은 요리작품을 창작하고!

4. 서아는 아카이빙 하기로 결정!

5. 태광&혜성은 음식 시식의 자리 셋팅!

6. 첫번째로, 아영의 작품 [지난 사랑의 여운 라면]이 창작되었고, 함께 음미하며 새로운 불닭볶음면과 마라맛의 세계로 여행하는 시간을 갖었음. 또한, 다사리 물품 중 달걀 두 알을 첨가하여~ 살짝 반숙된 노른자를 터트려 면과 비빔으로 매운맛은 중화되면서 담백함과 고소함이 더해졌음. 최고~최고~ 상상이상이었음.

또한, ♥ 태광 참여자가 왜 하필 '신라면' 을 갖고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냥이라는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음. 세상에 '그냥이란 이유는 없으니까!' 알고 보면 가영이랑 비슷한 상상으로 준비를 했었던 거였고, 알고 보면 그렇게 돌이는 텔레파시가 통한 거였다!

7. 두번째로, 국물라면 [몽땅때려넣어섞어라면]이 완성! 정말 풍성한 맛을 지닌~ 국물이 탄생!

이때까지 먹어 본 라면 중에~ 정말 라면 전문점에서 20여 년 동안 라면만 끓이신 분의 장인손맛이 깃든 작품이 탄생 된 듯!

8. 서로, 충분히 맛을 음미했고 우리의 프로젝트는 처음 기획자가 기획하면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재밌고 풍성하게 진행되고 행복하게 끝맺음 하였습.

9. 뒷정리는 텔레파시가 통한 '신라면' 두 미녀 분께서 맡아 주셨습.

* 혹시나, 빈손으로 참여 할 수도 있을 그 누군가를 대비하여 넉넉하게 준비해 온 예쁜 마음들 또한 서로 겹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로인해 서로를 상상하며 배려하는 예쁜 마음들을 서로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이렇게 서로를 상상하며 배려하며 함께 본격적인 각가지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된다면 뜻 깊은 추억과 많은 보람을 얻게 될 수도 있겠다." 상상이 가는 시간이었음.

- 다사리를 통해 배운 점 아쉬운 점 느낀 점 등등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젊은 문화예술기획자분들과의 만남을 통한 가슴 떨림은 얻지 못했던 것 같음. 우리가 왜? 하필? 여러 일들 중에서 '문화' 나 '예술'이라는 것으로 이 땅(경기도 혹은 대한민국)에서 "왜?" 기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 물음엔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한 거 같음.

그러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멘토링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직접적인 조언과 획기적인 상상력과 발상 등을 직접 1:1 '멘토'로서 '멘티'인 나에게 적합한 조언을 듣게 되어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1년간의 시간이 아깝지 않게 느껴졌음!!

울 주님팀~~님 perfect 했음~ 사랑합니다. 주성진 멘토님(주님)과 가은반장님, 그리고 해란이, 태광이, 가영이, 근준이, 아영이, 서아 막내 나경이까지 너무나 감사했고 즐겁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얻은 것은 다사리 1년 동안에 최고의 졸업선물이라 생각함^^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동생들~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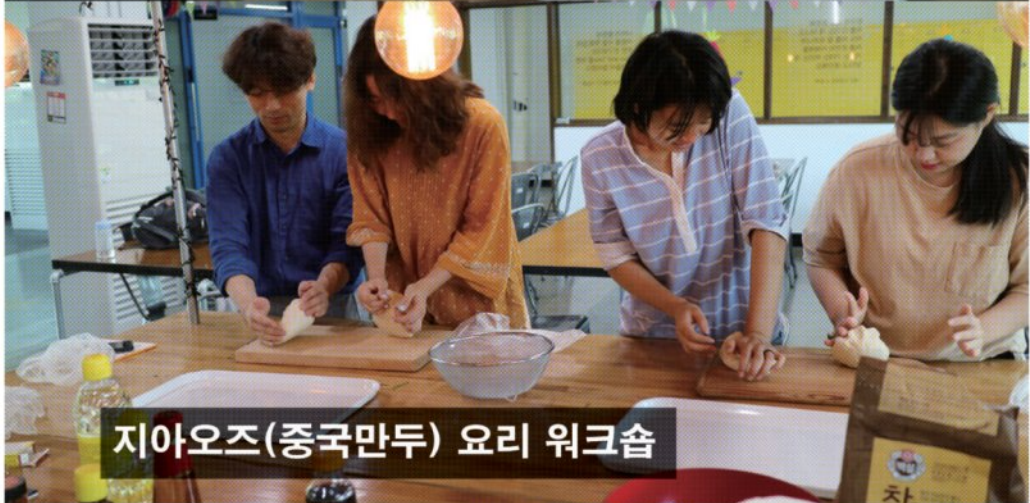






칼놀이x불놀이 워크숍





지아오즈(중국만두) 요리 워크숍





피의연대기



골반 강화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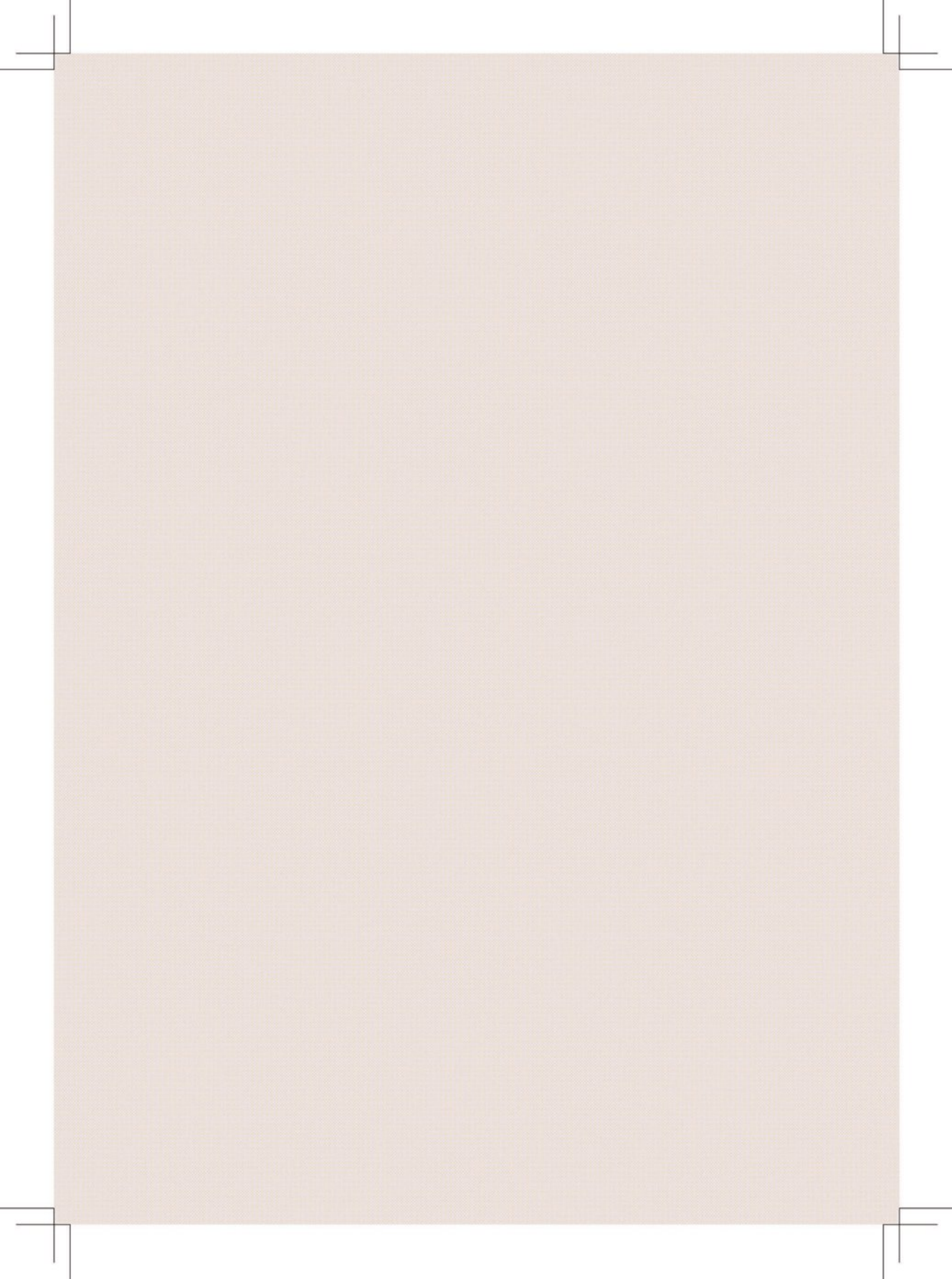


대안속옷 만들기



내몸 사용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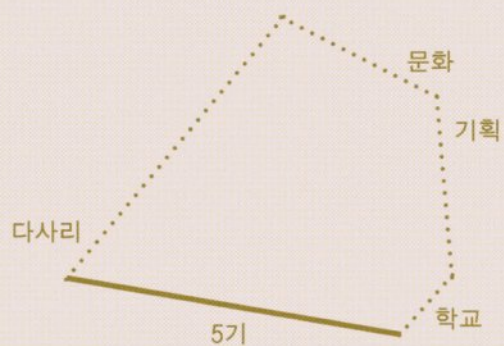


우리는 다사리문화기획학교 5기

우리 모두 이곳으로 다시 오기

5

기



“

인스타그램을 보는 중에 다사리문화기획학교 모집 공고를 보았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고, 다른 독립작가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는 것과 다른 시야를 넓히고 싶은 갈증이 있었다. 모집 공고 세부 내용에 적힌 매력적인 내용들을 보고 상상캠퍼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지원버튼을 눌렀다.

면접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곳에 왜 지원을 했는가?'에 대한 물음을 다시 한 번 찾는 기회가 되었다.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결과가 좋았다. 어리둥절하게 들어선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갔다 오고 엠티를 가서 느낀 첫인상은 '내가 있을 곳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었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분야에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고 막연히 멀리 보이는 산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사계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멘토 선생님들과 그리고 다사리 멤버들과 지내면서 수료식까지 달려가고 있는 지금은, 봄에 처음 내가 내게 던졌던 질문은 모두 해소되었다. 수업을 듣고 다사리 멤버들과 얘기를 하고 멘토링을 받고 야학을 들으면서 나는 매일 같이 머리가 깨지는 경험을 했다. 다양한 문화 기획의 예시와 욕망과 사회를 보는 다양한 시야는 멘토 선생님들과 다사리 멤버들과 함께 하면서 더 넓어졌다. 그렇게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가는 점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열려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학교를 오

는 것, 기획에 참여하는 것, 멘토링에 오는 것 모두가 강제성이 없이 열려있다는 것이 좋았다. 이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 체계화 되려면 열려 있는 큰 문 만큼의 자신의 열정이 받침이 되어야 했다. 많이 배우고 싶고 갖고 싶은 자는 그 정도 노력을 해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한다.

일정이 바뀌어서 듣지 못한 수업과 단축된 수업들이 아쉬웠으며, 은행과 관련된 예산 문제에 있어서 매뉴얼이 없어서 우왕좌왕 했던 시기가 있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음 기수에는 좀 더 실수를 서로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다사리 전기수가 모여서 친해질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더 다양한 기획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친분을 맺고, 그리고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한 해를 보냈고,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기술적으로만 숙련돼서 잘하는 사람이 아닌 더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기획자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노닐며 다닐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다사리의 열린 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홍준형

“

우선,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배움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퇴근 시간을 바꾸면서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의 대표님과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실까 싶어서 쓰는 겁니다) 월급쟁이 신분으로 다사리에 참여하는 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기에 매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보여주신 배려와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수상소감은 아닙니다만)

〈낮설여행〉이라는 기획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저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제가 임재춘 쌤 멘토링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진심으로 격려해주시고 조언해주셨기 때문에 태어나서 강원도 영월을 다섯 번이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준 멘티 연우, 준형, 지선, 행숙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고 가며 마주친 다사리 동기들의 응원과 화이팅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식

“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기획서로 풀어내고 기획물로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다사리 멤버들과 멘토님들과의 대화가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쉬운 점은 멘토 선택 후 다른 멘토 혹은 다른 팀원들과 교류할 시간이 현저히 적어졌다는 점입니다.

박윤정

“

다사리에서 문화기획의 힘에 대해 강조하고, 기획을 할 땐 욕망을 담아야 한다고 항상 말씀해주셔서 제 문화기획 방향이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엄청 큰 수확이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기획에선 기획자의 욕망을 최대한 감추고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확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반면에 아쉬운 점은 함께 한 시간이 짧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보니 내 생각을 공유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길게 작업하고 싶습니다.

양현아

“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기획들. 누군가에게는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사건들. 하지만 분명 존재하는 시간들. 낯선 타인과의 만남. 잠시 반갑게 마주하더라도 금세 타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만남들. 하지만 이곳이 학교였기 때문에 서로 동기로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 성별과 태어난 순서에 상관없이 호칭만 존재

할 뿐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시간. 외딴 곳에 있어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아늑함을 누릴 수 있었던 공간. 후배는 아니지만 다사리는 계속 이어진다는 감사. 이미 머물다 간 선배들이 궁금해지는 이유. 시간은 반년이었지만 4계절을 모두 누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 목요일이면 생각날 바람. 그리고 바람을 가르던 평음의 추억. 청년다웠던 하늘.

이현수

“

다사리문화기획학교 5기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수업을 들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몇 년간 외부활동이 적었던 저에게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아이들 저녁식사를 준비할 시간에 경기상상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멘토님들의 강의를 통해 기분 좋은 자극을 받았고 앞으로도 좋아하는 일을 더 열심히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각기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다사리문화기획학교 동기들을 통해 나이는 들지언정 생각이 늙지 않는 것,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기획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즐겁고 자유로운 문화기획을 할 수 있을까

요! 세심한 조언과 응원 해주신 멘토님들, 각양각색의 멋진 동기들,
모든 일정 지원에 힘써주신 상화쌤, 모두모두 감사해요!

‘엄마기획자차해란’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준 다사리문화기획
학교 5기, 잊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어느 곳에서든 지금의 반짝거림,
잃지 않기로 해요!

차해란

“

문화기획’이라는 단어를 다사리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써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 문화기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기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문화를 기획해보기까지! 알에서 깨어나 날아버린 기분이다. (우아하
게 비상하지는 못하고 파닥이는 날개 짓을 한 느낌을 지울 수 없지
만…….) ‘문화’라고 뭐 거창할 것이 있나. 나름의 삶의 방식들이 모
인 것이 문화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김가영

“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긴 흐름을 겪으며 스스로의 부
족함을 알고 많은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기획자는 ‘하나의 그
림을 만들기 위해 계속 선택하는 것’이라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이 하
는 모든 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기획자는 결국 소통하는

자이다. 통해야지 기획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사리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느껴져 솔직히 답답할 때가 있었다. 각각 개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적극적인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도 있는데 적극적인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곳은 아니었나 싶다.

유진

“

처음 다사리에 지원서를 냈을 때 배우고 싶은 것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생각한 것과 행하는 것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싶다’. 그리고 월식쌤께서는 인터뷰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을 지원서에 썼네”하시며 반가워하셨다. 생각해보면 다사리에 모인 우리는 너무나 다르고 또 그만큼 닮아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누군가의 ‘멋짐’과 ‘다름’을 한 번씩 더 떠올려보았다. 그리고 행복하게도 대부분 신기하고 따스한 것이었다.

다사리에서의 시간 동안 나의 역할과 각자의 포지션, 그리고 ‘육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모든 일에 ‘구심점’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다사리에서의 시간이 앞으로 내가 그려 나갈 그림을 구성하는 점과 선들 중에 큰 점을 찍게 된 것 같아 여러모로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될 점(.)이다.

함께해서 또 함께하지 못해서 행복했고 아쉬웠던 모든 다사리의 친구들 언제나 반짝반짝 파이팅!)

마태광

“

추억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

5월부터 12월까지, 봄에 만나, 4계절을 함께한 우리들은 어느덧 2018년의 끝자락인 겨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3일, 다사리 5기 특징들이 한껏 모인 파티점, 수료식을 앞두고 마음이 뭉클해 집니다. 함께 밥을 먹고, 놀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각자 자신의 꿈이 다르고, 그 꿈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 따로 보내주는 모습들을 볼 때는 정말이지 행복했습니다. 시간 지나도 연락할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지는 지금,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최서아

“

다사리에 처음 왔던 날 저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면접날이었는데 심지어 그 날은 비도 많이 왔었죠. 그래도 무언가에 이끌려서 여기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나니 정말로 그 비를 맞으며 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사리 덕분에 올 여름은 시원하고 정겨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수요일 밤에 현아언니의 수요살롱에서 요리를 해먹고 술을 마시며 다사리, 그루버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여름날의 즐거운 추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즐거운 숲 속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그것도 여름부터 가을까지 만났던 인연이었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술 활동과 기획 활동을 하면서 좋은 동료로서 만났으면 해요. 다들 따뜻하고 포근한 분들이라 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다사리문화기획학교와 경기문화재단, 주성진 멘토 선생님, 그리고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송아영

“

다사리에서의 시간은 제게는 도전이었고 견뎌 내야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도전하는 것을 즐기고 극한 상황에 나를 밀어 넣는데 주저함이 없는 나. 그만큼 자신 있고 당당한 나였는데 이놈의 나이가 뭔지……. 세대가 다른 멤버들과의 괴리감이 나를 주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환경이 주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 강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시키지도 않는 자율 속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최선을 다해 참여하려 노력했습니다. 초반에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소개해 주시는 책들도 열심히 찾아 읽고 다사리학교의 학생의 모습으로 매진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비슷한 연령대 혹은 연장자의 리더 그룹 속에서 주로 지내 왔습니다. 그에 비해 새로운 연령대 그룹의 만남, 이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 새로운 안에서 도전과 자극이 되었습니다. 초기를 이와 같이 진행되었

다면 중반 이후부터 구체적이고 세심한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사리를 통해서 나를 직면하고, 나란 사람에 대해 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예술교육자로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오래된 고민을 정리했습니다. 함께한 멤버들을 통해 객관적인 나를 응시할 수 있었고, 두려워했던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고 바꾸고 애쓰는 다사리식구들에게 응원의 마음이 커져가며 앞으로의 시간에서도 다사리에서의 시간이 잊히지 않을 듯합니다.

친구같이 의지하며 따랐던 멘토님께 특별히 감사하고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몸소 보여주시는 교장 선생님께는 무한한 존경을 드립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내딛은 첫 걸음이 수료를 앞둔 이 시점에 뿌듯함으로 다가옵니다.

지행숙

“

다사리를 통해 가장 많이 얻은 건 사람이다. 모두 다른 배경과 관심사를 가지고 사는 정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문화기획’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모여, ‘말 통하는’ 사람들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 윗세대지만 대화가 되고, 계속 말 듣고 싶은 어른들인 멘토님들도 만났다. 다사리는 따로 교과서가 있거나 실전 대비 강좌 같은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다. 각자가 가진 고유의 문화를 대화와 기획

으로 나누며 서로를 통해 배우는 교육이다. 실전에서 쑥쑥 일해내는 일꾼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속이 알찬 기획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긴 학교인 것이 느껴졌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다. 교장 쌤이 아프시면서 학교가 약간 뒤흔들리는 게 느껴졌고, 시스템이 뒤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 가치관과 잘 맞는 이곳을 선택하길 잘 했다 싶다. 다사리를 통해 내 정체성이 조금 더 확립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한다.

이연우

“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협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처음에 ‘들어주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기획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획으로서 실현 시킬지에 대해서 감이 전혀 안 왔어요. 그런데 멘토링 과정과 멘티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소스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기획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들려줘bar’ 자체가 저 혼자만의 기획이 아니라 다사리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같기도 해요. 저는 그 과정에서 큰 뿌듯함을 느꼈고 무언가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고, 결국 그것을 완성시켰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필요를 가진 사람

들을 만났다는 것이 다사리문화기획학교의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문화’라는 것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정말 너무나 즐거웠어요. 다사리문화기획학교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섬세하게 저 자신, 그리고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그냥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이 아니라 ‘문화기획학교’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는 모든 과정들이 배울 것이 있고 좋은 면을 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물론 다사리의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우선 5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체계가 아직 덜 잡혀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생각보다 워크숍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점도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목공 수업 받고 싶었는데!)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멘토링 위주로 만나다 보니 특정 멘토, 특정 멘티들과의 교류만 쌓이는 것 같아서 그 점도 좀 아쉬웠어요. 다른 멘토나 멘티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어느 날, 낮선 경기상상캠퍼스에 처음 발을 디디며 면접을 보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에 달달 떠는 겨울이 올 때까지 다사리문화기획학교 덕분에 너무 좋은 기억과 경험을 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사리! 사랑해요, 다사리!

이지선

“

다사리에 다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얻게 된 것 같다. 몇 가지만 고르자면 가장 먼저 공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상상캠퍼스와 함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상캠퍼스를 찾아주는 사람들은 상상캠퍼스라는 장소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일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다. 동그라미축제도 마찬가지로 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획자들과 스태프들, 참여자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른 곳에서 진행되었다면 어떤 축제가 되었을까, 사람들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하다.

두 번째로는 나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평소에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재미있다고 느껴 처음에는 이 광경이 익숙하지 않았다.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기획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막상 하려다보니 방법도 잘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했다. 내 생각을 나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노력하면 나아지려나……, 사실 아직,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된다. 좋은 것, 나쁜 것, 혹은 옳은 것, 틀린 것 모두 혼자서 하려고 하기 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다.

과연 어떻게 끝내게 될까 하던 다사리문화기획학교가 이렇게 끝이 났다.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후회되지만, 멋지고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매년 큰 사건 없이 평범하게 지냈는데 다사리 덕분에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된 것 같다. 다사리에서 보낸 시간들과 느낌들, 그리고 함께한 소중한 인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다.

조정현

“

시간이 급하게 지나가서 수업을 게임미션 수행하듯이 흘러보낸 거 같다. 기획실무기술적인 부분 등의 워킹을 했었으면 좋았겠단 생각이 들어 아쉽다. 너무 뜨거운 다사리 친구들 모두 넘 멋졌어요~ 만나게 되어 감사한 시간입니다~:)

강은정

“

다사리학교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힘을 많이 길렀다.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변화되고 충족되지 않는지를 배웠다. 수업을 듣고 내가 직접 기획을 실행하면서 짜는 모든 계획이 대부분 잘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고, 피치 못할 상황과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하게

잡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잘 이뤄질 것 같다.

나는 다사리 학교를 수료할 때 쯤, 나의 명확한 길이 펼쳐져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앞에, 뒤에 수많은 길 때문에 걷기가 망설여진다. 알게 알았던 기획이 많은 다사리 동기들에 의해 갇혀지고 많아져 고민이 날로 늘었다. 또 멘토 이채관 선생님을 만나고 같이 멘토링을 하면서 가능한 것들이 무궁무진해졌다. 다사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에 비례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 방식은 각자 다르지만 결국 같은 흥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 어울리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면서 많이 웃었다. 다사리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내가 이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혜란

“

(음슴체 주의)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젊은 문화예술기획자분들과의 만남을 통한 가슴 떨림은 얻지 못했던 것 같음. 우리가 왜? 하필? 여러 일들 중에서 ‘문화’ 나 ‘예술’이라는 것으로 이 땅(경기도 혹은 대한민국)에서 “왜?” 기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엔 아직 해답을 얻지 못한 거 같음.

그러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멘토링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직접적인 조언과 획기적인 상상력과 발상 등을 직접 1:1 ‘멘토’로서 ‘멘티’인 나에게 적합한 조언을 듣게 되어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1년간의 시간이 아깝지 않게 느껴졌음!!

을 주님팀~~님 perfect 했음~ 사랑합니다. 주성진 멘토님(주님)
과 가은반장님, 그리고 해란이, 태광이, 가영이, 근준이, 아영이, 서아
막내 나경이까지 너무너무 감사했고 즐겁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얻
은 것은 다사리 1년 동안에 최고의 졸업선물이라 생각함^^ 사랑합니
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동생들~모두♥

한혜성

“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와중에 조금은 무리해서 참여하게 된 다사
리문화기획학교. 지금 생각해 보니 무엇에 이끌려 그곳까지 가게 된
건지 모르겠다. 사실 수업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간상 부담스
러울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정의 선택지들 사
이에서 다사리 수업은 내게 한 주 중에 가장 즐겁고, 또 스스로 가장
하고 싶은 선택이었다.

준비가 된 듯 안 된 듯한 멘토님들의 자연스러운 강의 스타일도
너무 신선하고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학문중심이 아닌 정말 순수하
게 사람이 중심인 진정한 人文이 있는 수업들이 아니었나 싶다.

참 운이 좋았던 것은 이번 기수에 함께 했던 동기들 모두가 굉장
히 특별했던 것이다. 다사리가 아니었더라면 어디서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주옥같은 인물들이었다. 이들을 모두 배우려니 6개월도 너
무 부족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많이 아쉽고, 특별히 팀 프로젝트였
던 <치명캠프>를 함께 해준 모든 이들과의 만남은 너무 소중했다.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아마 여러분이 다사리에서 배운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쓸 데없는 일만 했을 거예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선생님께 우리는 모두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깊은 마음의 울림을 느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모두의 웃음 속에서 나 또한 "백 퍼공감"을 보았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에 찬사를 보냈던 우리 마음속의 찼한 울림의 근본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당해 본자만 알겠지...?ㅎㅎ)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다사리만의 치명적인 문화기획 수업에 감사함을 전한다.

방민아

“

올해 다사리 활동을 지내면서 다사리 외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일 많이 했던 말은 '미안해'였습니다. 그만큼 제 일상을 흔들었고, 세상 정신없는 사람이 되었고, 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양한 사람과의 경험을 얻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다사리에 합격한 후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멘토님의 교육적 가치관이나 문화기획의 이념,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다시 들어와 있는 제 자신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설렘했습니다. 그 요소들은 올해 시작한 회사의 방향성, 음악 활동에 편협했던 시선을 확장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 순간 갈등도 해야 했습니다. 치명캠프의 팀원이 된 순간부터 프로젝트가 마칠 때까지 멘토님들과의 수많은 토론과 팀

나의 끊임없는 회의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어지러울 수 있는 흔들림이었지만 생의 감각을 깨우는 흔들림이기도 했습니다. 치명캠프는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사리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제 목숨을 빼앗는 대신 제게 삶을 더하여 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더해진 다사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근준

“

내가 시작한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수술을 한지 2주가 되지 않을 때였다. 수술 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원서도 마감일 12시에 냈고, 면접도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 마주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같지 않아보였다. 그냥 좋게 말하면, 힙 해 보인다고 해야 되려나..? 파인애플 모양 같은 반팔티셔츠를 입은 사람과 머리도 크고, 눈도 진해보이는 사람과 화장기 없고, 너무나도 우아하고 근사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선생님이었으니까. 어느 것 하나 비슷한 분위기인 캐릭터가 없었다. 나와 같이 면접을 본 사람은 식자재를 하지만 알고 보니 문화기획을 했으며, 다른 하나는 예술의 전당에서 문화기획을 했으며, 내로라하는 실력의 소유자. 그래서 었을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면접에 잘 보이려하지 않았다. 그냥 단순하고, 용기 있게 있으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다사리문화기획학교를 벌써 마치다니, 이상하다. 나에게 다사리문화기획학교는 동화

였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야말로 진짜 살면서
희한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살아왔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야 하나. 처음쫘 자기소개를 하는데, 듣고 나니 사연은 모두 다르
지만 모두 다 뭐하나 특출 날 게 없고, 뭐 하나 뿌리를 뽑아 다듬
는 게 아닌 삶이 부유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너무 웃겼던 건, 자
기 자신이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거. 그러나 바뀌서 얘기하면, 여기저
기에 애정이 있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애정 있는 사람
들과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또 어른이 되고나서도 이럴 수 있구
나! 하는 공간에서 애정 있게 밤을 새며 올해를 보냈다. 다 말하게 하
여 다 잘살게 한다는 다사리문화기획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사실
다 말하지도 않을 거고, 다 잘 살지도 않겠지만, 또 이 문화기획학교
를 졸업한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기획을 할 수도 없겠고, 문화가 뭔
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냥 한바탕 잘 놀아봤다고 해야 되나. 맘껏
꿈꿔볼 수 없었고, 맘껏 실수할 수도 없었는데, 뭐 해본다고 집에도
안 들어가기도 해본 게 재미있었고, 기획한다고 모였다가 술을 더 많
이 마셨던 게 재미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열 명쯤 모였는데 그 사람
들 나이가 학교를 졸업한 어른들이었다는 게 재미있었다. 내 인생이
책이라면, 책갈피를 꽂아두고 싶은 페이지……였다, 다사리는.

이가은



편집위원장 : 최서아

편집위원 : 마태광, 이현수

장소제공 : 서아책방

